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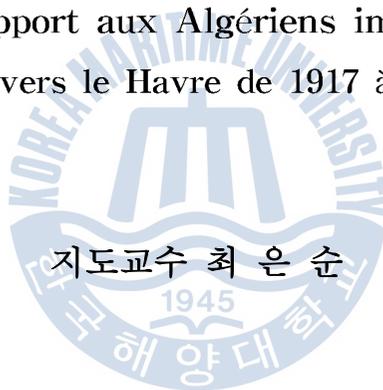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유럽지역학석사 학위논문

알제리 이주민에 대한 프랑스인의 타자 인식  
- 1917년~1920년, 르아브르를 중심으로 -

Reconnaissance de l'altérité des Français  
par rapport aux Algériens immigrés  
- À travers le Havre de 1917 à 1920 -



2011년 2월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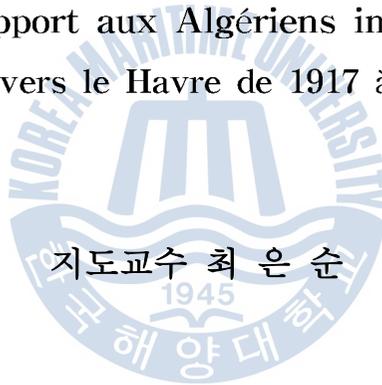
유럽학과

김상호

유럽지역학석사 학위논문

알제리 이주민에 대한 프랑스인의 타자 인식  
- 1917년~1920년, 르아브르를 중심으로 -

Reconnaissance de l'altérité des Français  
par rapport aux Algériens immigrés  
- À travers le Havre de 1917 à 1920 -



2011년 2월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유럽학과

김상호

본 논문을 김상호의  
유럽지역학석사 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위원장 정문수 (인)

위원 최은순 (인)

위원 정진성 (인)



2010년 12월 14일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목 차

표 목차 .....	ii
그림 목차 .....	iii
붙문 초록 .....	iv
서 론 .....	1
1. 식민시기의 알제리인에 대한 타자인식 .....	5
1.1. 식민정책에서 나타난 알제리인에 대한 인식 .....	5
1.2. 토착민으로서의 알제리인의 사회제도적 지위 .....	11
1.2.1. 피식민지 알제리인에 대한 마그렙 범주화 .....	11
1.2.2. 르아브르 알제리 이주민의 법적 지위 .....	14
2. 르아브르 주민과 알제리 이주민의 경계 설정 .....	18
2.1. 1차 대전 시기 르아브르의 이주민 유입 배경 .....	18
2.2. 알제리 이주민의 법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 .....	22
2.2.1. 출신과 직업 .....	22
2.2.2. 사회빈곤과 임금 .....	24
2.2.3. 규제와 거주 .....	26
2.3. 외국인혐오증 .....	29
3. 알제리 이주민에 대한 타자인식 변화 .....	33
3.1. 르아브르 주민-마그렙 이주민 갈등 표출: 베르틀로 사건 .....	33
3.2. 알제리 이주민은 외국인인가? .....	35
3.3. 가까운 타자와 먼 타자 .....	39
결 론 .....	45

## 표

<표-1> 1910년 대 르아브르 선박 입출항수 .....	20
<표-2> 1차 대전 시기 르아브르의 물가변동 .....	25
<표-3> 1911년, 1921년 프랑스와 르아브르의 외국인 비율 .....	29
<표-4> 1914년~1920년 르아브르 주민-이주민 폭력사건 .....	36



## 그림

<그림-1> 프랑스 식민정책에서 나타나는 프랑스-알제리 계층 변화 .....	7
<그림-2> 알제리 이주민의 제도상의 지위 .....	16
<그림-3> 알제리 이주민 주요 출신 지역 분포 .....	23
<그림-4> 식민지 출신 이주민의 신분증 .....	27
<그림-5> 1차 대전 시기 르아브르 인구 밀집 지역 .....	28



# Reconnaissance de l'altérité des français par rapport aux algériens immigrés

– À travers le Havre de 1917 à 1920 –

Kim, Sang-ho

Département des Études Européennes

*Cours de maîtrise des Études Européennes de l'*

*Université Nationale Maritime de Corée*

*(KMU, Korea Maritime University)*



## Résumé

Nous avons pour objectif de montrer comment se développe la reconnaissance de l'altérité des Français par rapport aux Algériens immigrés au Havre autour de la Première Guerre mondiale, notamment de 1917 à 1920. Nous posons une hypothèse sur laquelle cette reconnaissance commence déjà à s'établir à partir de la colonisation de l'Algérie par la France. Elle s'explique par la politique coloniale qui exclue les Algériens en leur attribuant le statut d'indigène. Ceci implique bien que le statut légal les oblige à accepter des situations discriminatives et inégales. On voit là qu'ils sont considérés comme «eux», mais pas comme «nous».

Une telle reconnaissance s'applique de la même façon aux Algériens immigrants au Havre avant et après la période de Première Guerre

mondiale. Les Algériens immigrés s'emploient souvent comme travailleurs coloniaux et deviennent victimes de discriminations économique, culturelle et sociale. On peut en illustrer par quelques politiques telles que zone de résidences limitée, de métier difficile et niveau de bas salaires, etc.

Cette situation discriminative se manifeste par l'émeute Berthelot éclatée entre Havrais et Maghrébins. Et cette manifestation appelle la remise en cause de la reconnaissance de l'altérité des Algériens, qui se distinguent toujours par rapport aux autres Maghrébins.



## 서론

레비나스Emmanuel Levinas는 『시간과 타자』를 통해 타자인식에 대한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타자와의 분리는 개별적인 자아의 정체성을 확립시킨다. 이러한 타자는 자아의 존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닫힌 내면의 세계에서 바깥의 세계로 끌어주는 존재이며, 이와 같은 타자의 존재에 대해, 타자와 타자성은 절대적인 존재로서 마주해야 하며 타자에 대한 윤리적인 대접은 결국 자아의 미래와 새로운 시간을 열어준다.<sup>1)</sup>

이와 같이 레비나스는 타자와의 분리와 자아 정체성의 확립의 관계에서 올바른 타자인식에 대한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세계관 속에서 타자는 자아와는 대립되는 존재 또는 도구로서의 존재였다. 새뮤얼 헌팅턴Samuel Huntington은 현실의 세계관에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개별적 존재들의 결집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수가 필요하다고 했다.<sup>2)</sup> 즉, 현실 속 정체성의 확립은 적대적인 타자의 설정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ide 또한 타자는 자아의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서 사회와 시대를 막론하고 필수적인 존재였다고 지적하고 있다.<sup>3)</sup> 즉, '우리'라는 자아 정체성의 확립과 '그들'이라는 타자의 설정은 현실의 세계관에서 필연적인 관계에 놓여있는 작업이었다. 실제로, 이러한 작업은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다. 그 예를 우리는 오리엔탈리즘 그리고 식민사관의 출현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예들은 현실 속에서 존재해왔던 타자 설정과 타자의 발명이 자아 정체성의 정당화의 도구로써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타자인식에서 처음 행해지는 작업은 신원확인이다. 신원확인에서 자아는 타자를 구별하여 다양한 범주(민족, 문화, 국가, 사회계층 등)로 분류하여 넣는다.<sup>4)</sup> 결국, 이와 같은 신원확인 작업에서 다양한

1) 엠마누엘 레비나스 저/강연안 역(2009),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2) Samuel P. Huntington(1996), *The clash of civilizing and the remaining of world order*, Georges Borchardt, p.20.

3) 에드워드 사이드, 저/박홍규 역(2007),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범주로의 분류가 생기며, 하나의 개체(또는 집단)에 하나 이상의 범주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집단은 여러 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이 타적 정체성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이와 같이 형성되는 타자인식의 범주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상황과 해석하는 이에 따라 달리 선택되어질 수 있다.<sup>5)</sup> 즉, 현실의 세계관 속에서 '우리' 또는 '그들'로의 구분은 결국, 타자의 정체성을 도구로서 선택하는 것이었다. 결국, 이러한 선택은 가변적 또는 상대적인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타자인식은 프랑스인의 알제리인에 대한 타자인식에서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날 프랑스인의 알제리인에 대한 타자인식은 특히 알제리 전쟁 이후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이슬람 포비아를 만연하게 하는 부정적인 이민자의 대표'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대변된다. 현재 프랑스에서 주목할 만한 이주민 집단으로 자리 잡은 알제리 이주민들은 1차 대전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대규모로 유입되었다. 1차 대전과 전후 재건 시기에 알제리 이주민들은 프랑스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 역할을 했고 프랑스는 노동력을 요할 때마다 알제리인들에 대한 정책의 노선을 바꾸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프랑스가 알제리인을 '우리'와 '그들'로 구분하는 것 또한 국면에 따라 변화한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으며 1차 대전 시기와 같이 노동력을 요했던 시기는 주요 이주민 집단인 알제리 이주민에 대한 구분 또한 변화했을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1917년~1920년 시기의 르아브르Le Havre의 사례를 통해 알제리 이주민에 대한 프랑스인의 타자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르아브르는 역사 속에서 파리와 대서양을 잇는 주요 항으로 기능했고 오늘날에는 프랑스 제 1의 컨테이너항이다. 또한, 2차 대전 이후, 오귀스트 빼레Auguste Perret가 참여하여 재건된 파리 거리rue de Paris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한 아름답

---

4) 프레드 포쉐(2009), 「발표문: 레비나스 철학에서 보이는 이방인에 대한 관심, 원제: Le souci de l'Étranger dans la philosophie de Lévinas」, 『학술 심포지움 및 콜로키움, 2010. 10. 14』,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pp.1-14.

5) 드니쿠슈 저/이은령 역(2009), 『사회과학에서의 문화 개념 -사회학과 인류학을 중심으로-』, 한울아카데미, pp.158-160.

답고 평화로운 항구도시이다.

1차 대전 시기, 1914년 봄을 기점으로 하여 벨기에로부터의 피난민이 르아브르로 유입되었고 연합군의 군인들이 전선으로 가기 위해 르아브르를 경유하여 갔으며 1915년부터 알제리 이주민을 비롯한 식민지 출신 이주민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지로부터 유입된 이주민들과 르아브르의 주민들의 동거가 시작되었다. 인구과잉과 전시상황으로 인한 위생과 치안문제, 사회적 빈곤, 저임금, 과업, 물자부족 등이 1차 대전 시기의 르아브르를 꾸며주는 수식어이다. 특히, 1917년은 빈곤과 사회의 불안이 가장 극심했던 시기이며 르아브르 사회에는 외국인 혐오증이 만연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르아브르에 거주했던 알제리 이주민에 대한 프랑스인의 타자인식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시기를 1917년부터 1920년까지로, 공간을 르아브르로 한정하여, 1차 대전 시기를 시작으로 르아브르에 대규모로 유입된 알제리 이주민들에 대한 프랑스인의 타자인식을 1917년의 르아브르의 베르틀로 거리rue Berthelot의 폭력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1920년까지의 일련의 사건들을 바탕으로 살펴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17년과 1920년까지 르아브르 내에서 엿볼 수 있는 타자인식을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 전체사에서 나타나는 타자인식 또는 알제리 이주민에 대한 일반적인 타자인식에 대한 연구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먼저, 식민관계에서 비롯되는 프랑스의 알제리인에 대한 전통적인 타자인식을 살펴본 후, 알제리 이주민이 대규모로 이주한 1차 대전 시기의 르아브르의 사회배경과 그 속에서 나타나는 알제리 이주민의 위치를 알아보겠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르아브르의 알제리 이주민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건들을 바탕으로 르아브르 프랑스인의 알제리 이주민에 대한 타자인식을 살펴볼 것이다.

르아브르에 관한 연구는 루앙과 르아브르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sup>6)</sup> 본 연구에서 다룰 시기인 1917년~1920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수는

---

6) 르아브르에 관한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관점의 연구는 국내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르아브르에 대한 프랑스의 연구는 르아브르 대학과 루앙 대학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자 간 지

많지 않으나 도시의 노동사<sup>7)</sup>와 관련해서는 주목할 만한 연구가 이루어져있다. 또한, 르아브르의 이주민에 관련한 연구도 활발한 편이나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되는 1910년대 그리고 알제리 이주민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드물다. 1917년부터 1920년까지의 시기의 르아브르의 알제리 이주민에 대한 기존의 연구<sup>8)</sup>는 사건만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초점을 알제리 이주민이 아닌 마그렙 이주민에 두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기술된 사건을 프랑스인의 알제리 이주민에 대한 타자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는 본 연구가 오늘날 문제되고 있는 프랑스의 알제리 이주민에 대한 타자인식에 대한 연구에 함의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



---

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 학술서가 발간되고 있다.

- 7) John Barzman(1987), *Labor and politics in France: Le Havre, 1913-1923*, University of California.
- 8) Élisabeth James(2005), "Algériens, Marocains et Tunisiens de 1914 à 1920", *Migrants dans une ville portuaire: Le Havre, XVI<sup>e</sup>-XXI<sup>e</sup> siècle sous la direction de John Barzman et Éric saunier*, Publications des Universités de Rouen et du Havre.

# 1. 식민시기의 알제리인에 대한 타자인식

## 1.1. 식민정책에서 나타난 알제리인에 대한 인식

16세기 초부터 모로코를 제외한 북아프리카 지역 대부분은 오스만 제국에 합병되었고 알제리 지역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후, 북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오스만의 통치는 계속되다가 1830년 프랑스의 알제리에 대한 정복 사업의 시작으로 알제리 지역에서의 투르크의 지배는 막을 내렸다. 프랑스의 침략에 대해 알제리 서부 지역에서 알 카데르Abd al-Qadir를 중심으로 저항운동이 시작되었고 1847년 알 카데르의 항복을 받아내기까지 프랑스는 전군의 1/3인 10,8000천명을 알제리에 파견하였다. 알제리의 저항운동은 1870년에 이르러 대부분 진압되었다.<sup>9)</sup> 결국, 알제리 지역은 1830년부터 1962년까지 130여년의 기간을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관계가 수직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프랑스와 알제리의 관계 또한 수직적 관계에서 비롯될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프랑스는 침략 초기의 정복 사업과 동시에 알제리를 통치할 행정 틀을 마련했다. 프랑스는 알제리를 직접 통치하의 식민지colonie로 편입시켰다. 직접 통치를 위한 행정 체계 조직은 알제리 침략 초기부터 이루어졌다. 1834년 프랑스는 북아프리카Afrique du nord의 프랑스 소유지를 관리할 총독, 군사령관 그리고 행정 관료를 임명하였으며 알제Alger, 본Bone, 오랑Oran 세 도시에 시의회와 재판소를 갖추게 하였다. 프랑스는 알제리를 곧 해외도로 편입하였으며 제 3공화정 시기인 1881년 오랑, 알제, 콩스탄틴Constantine을 내무부 ministère de l'Interieur산하의 3개 도로 분류하였다.<sup>10)</sup> 이로써 프랑스가 알제

9) 존 아일리프 저/이한규강인환 역(2002), 『아프리카의 역사』, 이산, p.296.

10) 노서경(2005), 「알제리 전쟁에 대한 프랑스인의 ‘과거’ 성찰 -폭력의 문제를 중심으로」, 『프랑스사 연구』 제12호(2005. 2), 한국프랑스사학회, p.63.

리를 하나의 행정 틀 안으로 편입시켰고 프랑스의 하나의 도가 되었다.

행정적 통합과 함께, 19세기를 지나오면서 프랑스와 알제리는 경제적인 면에서도 밀접한 관련을 가졌다. 이는 이주민의 흐름과 관련된다. 1840년에 들어서면서 알제리로의 본국계<sup>11)</sup> 이주민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알제리에 거주하는 프랑스인의 수도 점차 증가하여 1896년에는 290,000 여명의 프랑스인이 알제리에 거주하게 되었다.<sup>12)</sup> 이와 같이 많은 본국계 이주민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적극적으로 이주를 장려하는 프랑스의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프랑스는 적극적인 이주 모집을 위해 이민국을 설립하였고 알제리로의 이주민에 대해 세금, 토지매입에 대한 특혜, 정착 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이주를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에 편승하여 지중해 쪽의 빈곤한 농민층과 도시의 실업자들의 알제리로의 이주가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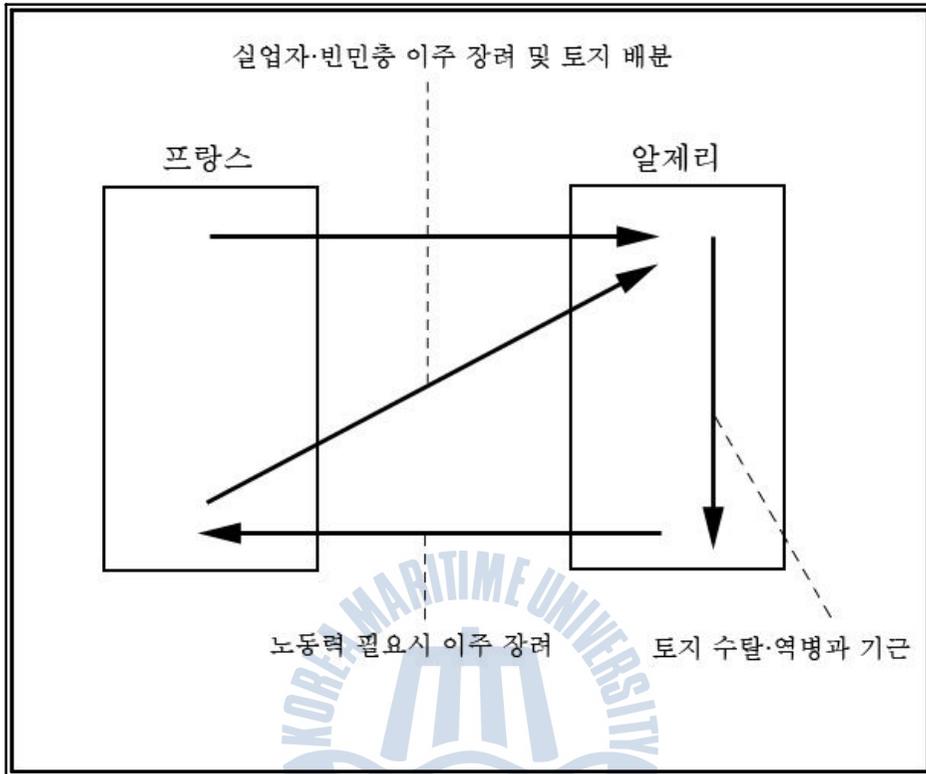
알제리로의 본국계 이주민의 증가는 프랑스가 노동력을 요했던 전시와 재건의 시기에 노동력의 부족을 야기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프랑스에서의 노동력 부족의 시기에는 알제리 이주민이 노동자로 유입되었고 결국, 이와 같은 프랑스와 알제리 간의 경제인구의 교환은 두 국가 간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

프랑스와 알제리의 인구 교환은 식민자와 피식민자 간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프랑스는 알제리를 행정단위의 하나인 도로 편입시키고 속주주의에 의거한 국적법을 알제리 영토까지 확장했으나 알제리인은 프랑스인의 하위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신분에 머물게 되었다. 또한, 인구교환에서도 제도상에서 보이는 수직적 계층화 구조를 엿볼 수 있다. 프랑스인의 많은 수가 알제리로 이주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프랑스가 알제리의 사회, 경제에서 세력의 기반을 다지고 프랑스인이 아닌 유럽인에 대한 세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이주를 장려한 것과 알제리가 프랑스 국내의 프롤레타리아의 배출구로서 기능한 것

11) 본국이라 함은 프랑스를 말한다.

12) 이재원(1995), 「제국주의의 식민통치비교: 프랑스-알제리」, 『역사비평』 통권 30호(1995. 2), 역사문제연구소, p.162.

<그림-1> 프랑스 식민정책에서 나타나는 프랑스-알제리 계층 변화



극소수로 판단되는 알제리인 부르주아를 배제하고 작성하였음.  
 자료: 필자가 직접 작성.

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랑스와 알제리 간의 인구교환은 서로 경제적 개연성을 가지고 이루어졌지만 프랑스 정부는 인구교환과 함께 계층 간의 이동을 <그림-1>과 같은 양상으로 진행시키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프랑스 정부의 의도는 토지 정책에서 잘 드러난다.

프랑스 정부는 알제리인들로부터 토지를 몰수하여 지중해 연안의 농민을 비롯한 프랑스 이주민을 입식시키는 정책을 펼쳤고<sup>13)</sup> 이러한 정책은 결국 알제

13) 식민지 초기에 프랑스는 무력을 통하여 강탈한 토지에 지중해 연안의 프랑스 농민들을 입식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입식한 토지에서 프랑스 농민들은 대규모의 자본을 가진 농부들에게 밀려났다. Michael Samers(1997), "The production of diaspora: Algerian emigration from colonialism to neo-colonialism (1840-1970)", *Antipode* 29:1, Blackwell publishers, p.46.

리인의 부를 프랑스인 이주민의 것으로 전환하는 노골적인 것이었다. 한편, 1860년대 말 기근과 콜레라·티푸스·천연두의 유행으로 잔존하던 알제리 귀족마저 몰락하였다.<sup>14)</sup> 결국, 귀족의 몰락과 사유지의 확산으로 알제리의 전근대사회가 전복되었지만, 프랑스 통치 하의 식민지 상황으로 인해, 알제리의 근대사회로의 이행 단계에서 알제리인 내부의 계층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알제리인 전체가 프롤레타리아화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경제적으로 프랑스와 알제리는 하나의 틀을 가지기는 했지만 사실 상 내부에서는 프랑스인을 상향화 하고 알제리인을 하향화 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이러한 정책은 알제리인을 사회의 하부에 넣고 몰화 또는 주변화 하는 정책이었다.

이러한 알제리인에 대한 태도는 프랑스로의 알제리 이주민 증감에서도 엿볼 수 있다. 프랑스로의 알제리 이주민은 프랑스의 국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프랑스는 노동력을 요하는 시기인 전시와 재건의 시기에 알제리 이주민의 모집과 이동을 장려하였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알제리 이주민의 수가 급증하는 것은 1차 대전 시기와 전후 재건의 시기라 할 수 있는 1920부터 1924년까지이다. 1차 대전이 끝나던 1918년에 알제리 이주민은 80,000 여명에 달했다. 그러나 전선으로 나간 프랑스인들이 귀환하고 군수산업이 일시 중지되어 프랑스인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투명해지는 1919년과 1920년 사이에 알제리 이주민은 10,000명으로 줄었다. 이와 같이 프랑스는 알제리를 프랑스의 사회적 틀 안으로 편입시켰고 프랑스의 국면에 따라 타자와의 거리를 조절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프랑스는 식민 학교'école coloniale를 통해 식민 개척자를 양성하였다. 식민 학교의 모토motto는 '식민지를 아내로 삼기'épousez le pays였다.<sup>15)</sup> 이는 식민지에 대한 여성성의 부여와도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송도영에 따르면, 남성성과 여성성은 집단들 그리고 사회들 간의 지배, 피지배의 정당성에서 자

14) 『아프리카의 역사』, p.297.

15) Malika Rebal Maamri(2009), "The syndrome of the french language in Algeria", *International journal of Arts and Science*, University of Algiers, p.73.

주 동원되는 도구 중의 하나로 근대의 여성성은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비주류이자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과 수직적 구조 관계를 가지는 이미지로 표현된다.<sup>16)</sup> 결국, 프랑스는 식민지와와의 관계에서 식민지에 대해 여성성을 부여하여 문화적 수직구조를 합리화 또는 정당화하려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식민지배하에 알제리에 대한 프랑스의 타자인식은 수직구조를 전제로 하고 자아를 확장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측면에서 보이는 프랑스의 알제리에 대한 타자인식과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알제리의 타자성 *altérité* 을 정당하게 바라보지 않고 타자성의 상실을 전제로 한 후, 자아의 새로운 연장선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도시 재편성 정책에서 엿볼 수 있다. 송도영에 따르면, 프랑스는 근대화 과정에서 얻은 도시 공간에 대한 경험을 알제리의 수도인 알제의 도시 재편성 정책에 투영하였다. 19세기 초 프랑스에서 일어난 도시의 인구 집중화 현상은 파리의 위생, 교통 등과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켰고<sup>17)</sup> 이에 대한 대

16) 송도영(2004), 「이슬람권 식민지 경영과 오리엔탈리즘의 지식권력 -프랑스의 식민 도시정책에서 사용된 공간의 여성이미지화」, 『담론』 201, 7(1), pp.174-178.

17) 프랑스에서 비교적 근대화가 빠른 지방이라 할 수 있는 르아브르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1847년 3월에는 파리-루앙-르아브르 구간에 철도가 개통되었고 1880년에는 전신이 개설되었다. 또한 르아브르는 16세기 건설된 뒤 삼각무역, 대서양무역을 통해 무역의 거점이 되었고 1784년 뉴욕과 프랑스를 잇는 항로가 최초로 개설되기도 하여 19세기에 인구가 크게 집중되었다. 1852년 이전의 르아브르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던 도시였다. 1831년부터 1852년까지 르아브르의 인구는 5,000명이 늘어나 28,954명이었던 반면, 교외 지역은 22,000명이 늘어나 30년 간 3배로 인구가 증가하였다. 1846년부터 1852년의 기간 동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인구가 오히려 3,000명이 줄었다. 르아브르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던 이들은 교외지역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미루어볼 때 1852년 이전의 르아브르가 수용할 수 있었던 인구의 수는 약 30,000여명으로 추산되며 1852년 이전 도시의 인구밀집도는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1852년 르아브르의 성벽을 허물기로 하는 법령이 내려졌고, 르아브르의 성벽은 허물어졌고 앙구빌 Ingouville 등의 일부 교외지역은 르아브르에 합병이 되었다. 도시의 규모는 2배에 가깝게 커지며 사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형태의 도시가 되었다. 인구가 다시 늘어 1861년에는 74,336명이었다. 성벽을 허문 후에 석조건물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목조건물 지역의 주민들은 늘어나는 높게 지어진 석조건물들에 대한 동경과 반발심으로 자신들의 목조건물들을 더욱 높게 짓기 시작했다. 높아진 목조건물들은 건물과 건물사이의 거리의 일조량을 감소시켰으며 결과적으로 거리를 습하고 어둡게 만들었다. 당시의 시 당국의 기록은 “높아진 목조건물들로 인해 목조건물들의 지역에서는 하루 종일 악취가 난다”고 기록하고 있다. J. Soulas(1940), "Les étapes de l'évolution du Havre de 1789 à nos jours", *Annales de Géographie*, Année 1940, Volume 49, N°280, p.205; Rother Suzanne(1937), "Le Havre port colonial", *Annales de Géographie*, t.46, N°2, p.

책으로 상하수도의 정비, 채광 문제의 개선, 도로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경험은 알제에 그대로 투영된다. 이러한 알제에 대한 도시 정책은 프랑스가 알제리의 공간을 확장된 자아로서 인식한 것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다.<sup>18)</sup>

그러나 프랑스는 알제리인에 대하여 여전히 ‘그들’로서 인식하고 자아와 분리한다. 프랑스는 알제리의 전통공간에 모스크를 무너뜨리고 유럽식의 건물을 세웠으며 여러 곳에 광장을 개설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은 강제된 상황에서의 문화 혼종을 강요하는 것으로 문화의 동질성 상실로 이어졌고 ‘짓밟혔다’는 알제리인들의 반발을 유발하였다. 결국, 1865년을 즈음으로 하여 알제에 대한 도시 정책은 유럽인의 공간에 필요한 재개발을 진행하는 동시에 알제리인의 공간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프랑스인의 공간은 알제리인 프롤레타리아를 카스바Casbah의 아랍인 전통구역으로 밀어내면서 확장되어갔다.<sup>19)</sup> 따라서 카스바에는 알제리인들이<sup>20)</sup> 밀집하였고 전통구역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다는 프랑스의 입장은 카스바를 위생문제, 빈곤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했다.<sup>21)</sup> 새뮤얼 헌팅턴은 문명화된 ‘우리’와 문명 외곽의 ‘그들’은 인류 역사에서 늘 나타나는 변수이며 이는 타인에 대한 우월감, 불신과 두려움,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의 생소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sup>22)</sup> 프랑스가 알제를 유럽인의 구역과 알제리인의 구역으로 나눈 것은 문명적 정체성으로 유럽인을

---

182.

18) 송도영(2002), 「상징공간의 정치: 프랑스의 북아프리카 식민 도시정책」, 『한국문화인류학』 35-2, 한국문화인류학회, p.137.

19) 1899년 르아브르를 대표하여 르아브르의 학자 에드워드 프레셰Édouard Preschez는 지리학 협회 회의Congrès des sociétés de géographie를 위해 알제리를 방문했다. 그는 알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유럽사람들이 베일을 한 근동사람Levantins, 몰타인, 흑인, 아랍사람 그리고 무어인들을 연이어 마주치던 알제의 거리들의 특이함을 그 무엇도 되돌려 놓을 수 없다. 유럽식의 광장은 매일 전통마을을 침략하고 있다.” Claude Malon(2006), *Le Havre colonial de 1880 à 1960*, coll. « Bibliothèque du pôle universitaire Normand », Université de Rouen et du Havre, p.549.

20) 북아프리카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보통 태수의 성 주변지역 또는 성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19세기 이후, 식민지 시대에 유럽인들은 유럽인의 공간과 대조를 이루는 전통공간에 대해 카스바라 부르기도 하였다.

21) 「상징공간의 정치: 프랑스의 북아프리카 식민 도시정책」, pp.136-140.

22) 『문명의 충돌』, p.169.

‘우리’로 그리고 알제리인을 ‘그들’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식민지 지역에 대해 문명적 우월성을 가지고 ‘계몽시켜야 할 그들’로 인식하여 식민지배의 당위성을 찾는 식민사관과도 관련된다. 결국, 도시 재편성 정책에서 알제리인은 다른 국적을 가진 유럽출신의 외국인에 비해 ‘먼 그들’로 설정되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요컨대, 식민정책에서 프랑스의 알제리인에 대한 타자인식은 수직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관계였으며 알제리인을 물화 또는 주변화 하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결국, ‘우리’ 또는 ‘그들’이라는 인식은 이해관계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었다.

## 1.2. 토착민으로서의 알제리인의 사회제도적 지위

### 1.2.1. 피식민지 알제리인에 대한 마그렙 범주화

1차 대전 시기 알제리는 프랑스의 직접통치에 의한 식민지였다. 이와 같은 통치 방식은 간접통치 방식을 취하는 모로코, 튀니지와 같은 보호령과 차이를 가지며 알제리인과 보호령의 원주민은 제도상의 지위에서도 차이를 가진다.

알제리는 해외도DOM, département d'outre mer로 프랑스의 하나의 도로 편입되어 있었다. 알제리인은 1865년 나폴레옹 3세가 공포한 법령décret에 의해 무슬림이라 하더라도 프랑스 국민으로 프랑스인과 동일한 기간 동안 군 복무를 할 수 있었으며 프랑스 국내로의 이주가 가능했다. 1881년 제정된 토착민법indigenât에 의해 토착민indigène은 프랑스 주권 범위에 포함되지만 프랑스 국민과는 차별적이고 제한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sup>23)</sup> 1889년 6월 26일에 제정된 법loi은 ‘알제리를 포함한 프랑스에서 태어난 이는 그의 부모가 프랑스인 또는 외국인임에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프랑스인이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알제리 무슬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고,<sup>24)</sup> 따라서

23) L. Le Sueur·Eug. Dreyfus(1890), *Droit public et privé. La nationalité (droit interne), commentaire de la loi du 26 juin 1889*, Libraries de la cour d'appel et de l'ordre, p. 253.

대부분의 알제리인은 토착민의 신분으로 남았다. 이재원에 따르면, 1881년의 토착민법은 알제리의 프랑스인들이 모든 권리의 혜택을 받게 하고 알제리인들은 단순한 과세대상으로 취급하는 차별과 억압에 관한 규정들을 성문화한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sup>25)</sup> 또한, 이사벨 메리 Isabelle Merie는 이와 같은 토착민법은 제도상에서 본국인과 식민지인의 극단적인 단절을 가져오는 것이라 지적한다.<sup>26)</sup> 결국, 활발한 인구 교환으로 프랑스와 알제리 지역에는 프랑스인과 알제리인이 함께 거주하였으나 토착민법을 비롯한 제도상의 장치들은 결코 프랑스인과 알제리인을 ‘우리’로 인식할 수 없는 분절된 지위를 가지게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프랑스의 간접통치를 받는 보호령 protectorat에 속하는 모로코 또는 튀니지 등의 지역은 알제리와 같이 프랑스의 하나의 행정단위로서 간주되지 않았다. 보호령의 원주민들 중 시민권을 획득한 이도 일부 있었으나 프랑스의 인구조사에서 신민 sujets 또는 피보호민으로 인식되었고 이들은 프랑스 재판소에 의해서 외국인으로 간주되었다.<sup>27)</sup>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볼 때, 알제리인은 제도상에서 프랑스인과 분명히 차별받는 존재였으며 다른 보호령 출신의 마그렘 maghreb<sup>28)</sup>인들과도 다른 범주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알제리인의 제도상의 지위와 관련하여, 문화에서 기인하는 프랑스의 타자인식은 크레미유 Crémieux 법령에서 찾아볼 수 있다. 1894년의 크레미유 법령의 137조에는 알제리인이 프랑스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명시하고

24) Patrick weil(2003), *Le statut des musulmans en Algérie coloniale, Une nationalité française dénaturée*,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Badia Fiesolana, p.5

25) 「제국주의의 식민통치비교: 프랑스-알제리」, p.160.

26) Isabelle Merie(2004), "De la « légalisation » de la violence en contexte colonial. Le régime de l'indigénat en question", *Politix*, Vol. 17, N°66, Deuxième trimestre 2004, p.160.

27) 플로랑스 르누차황명진(2008), 「프랑스 거주 외국인에 관한 인구사회통계: 우리나라 외국인통계제도정립을 위한 예비적 고찰」, 『한국인구학』 제 31권 제 2호, 한국인구학회, p.161.

28) 마그렘은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북아프리카 지역의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경우에 따라 리비아까지 포함한 지역을 지칭하며 역사적으로는 이슬람이 지배하는 지중해의 지역(이베리아 반도와 시칠리아, 몰타)까지 아울러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본고에서 마그렘은 식민지 시대에 프랑스인들이 말하는 북아프리카 즉,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를 말한다.

있다.<sup>29)</sup> 그러나 알제리인은 사적 지위라고 할 수 있는 종교를 포기해야만 프랑스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고 1921년이 될 때까지 프랑스 시민권을 획득한 알제리인 무슬림은 약 1,000명에 불과했다.

알제리인은 프랑스 주권 내에 포함은 되나 프랑스 국민과는 차별적인 지위인 토착민으로 남게 되었다. 크레미유 법령은 알제리인이 시민권을 획득할 기회에 대해 명시했으나 이는 무슬림이라는 정체성을 버릴 때에만 가능한 것이었다. 결국, 무슬림이라는 정체성은 프랑스에게 있어 ‘우리’와 ‘그들’을 구별 짓는 조건들 중 하나였다. 1887년의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슬람에 대한 거부감을 엿볼 수 있다. 1887년 알제리인 무슬림에 대해 프랑스 시민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법안이 프랑스 의회에 제출되지만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시민권과 회교도의 지위는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결국, 알제리인들은 프랑스 영토 내에서 출생했으나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국적을 받지 못하였으며, 종교에서 기인하는 사적 지위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시민권을 받지 못하였다.<sup>30)</sup>

이처럼 프랑스의 알제리인에 대한 무슬림으로서의 타자인식은 제도상에서 잘 드러난다. 이와 같은 프랑스의 타자인식에서 미루어 볼 때, 알제리인과 보호령에 속하는 모로코, 튀니지 주민이 가지는 제도상의 지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무슬림이라는 범주로 하나로 인식한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인식은 이슬람으로 대표될 수 있는 마그렙이라는 범주로의 인식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마그렙이라는 범주로의 알제리 이주민에 대한 인식은 1차 대전 시기에 유입된 식민지 출신 이주민에 대한 분류에서도 나타난다. 로랑 도넬 Laurent Dornel에 따르면, 1차 대전 시기에 프랑스 산업에 투입되는 식민지 출신 이주민들을 분류하고 배치하는 업무는 국가의 개입을 받았고 인종적 선입

---

29) *Décret sur la Naturalisation des Indigènes musulmans de des Étrangers résidant en Algérie du 24 Octobre 1870, N°137.*

30) 결국 토착민법에 의해 프랑스로 귀화한 알제리인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국민도 아닌 외국인도 아닌 프랑스에 종속된 자’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토착민법은 알제리를 종속시키려는 프랑스의 의도를 더욱 명백히 보여주며, 이는 프랑스가 식민지배하의 알제리인들을 도구화하기 용이하게 만드는 수단의 토대가 되었다 할 수 있다.

견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분류와 배치에서 알제리 이주민은 마그렙 이주민으로서 모로코 이주민, 튀니지 이주민들과 한 범주로서 취급되고 베르베르족 Berber과 아랍계 민족으로 분류되어 중국인, 서아프리카인 등과 비교된다.<sup>31)</sup> 이처럼 알제리인들은 제도적 차원에서는 모로코, 튀니지의 마그렙인들과 다른 지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또는 문화적 차원에서는 마그렙의 범주로 분류되어 타자로 인식된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프랑스인과 알제리인은 동일한 국가의 주권범위 안에 존재했지만 차등적 관계였으며 알제리인은 수직적 구조에서 하부에 해당하는 토착민이라는 범주에 속했다. 프랑스의 타자인식에서 법적으로 알제리인은 토착민으로 지칭되는 타자로 남았으며 동시에 프랑스의 주권 범위에 속했지만 여전히 모로코, 튀니지 주민들과 같은 마그렙이라는 범주 또한 그들에게 적용되었다.

### 1.2.2. 르아브르 알제리 이주민의 법적 지위

알제리 이주민<sup>32)</sup>의 제도상의 지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주민, 외국인 그리고 이민자의 개념을 분리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차 대전 시기는 식민지배에서 기인하는 특수한 시기이며 알제리인은 프랑스의 주권 범위 내에 있는 인구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주민 또는 이민자와 외국인의 개념을 혼동한다면 알제리인의 제도적 지위를 제대로 살필 수 없게 된다.<sup>33)</sup> INSEE(프랑스 국립

31) Laurent Dornel(1995), "Les usages du radicalisme. Le cas de la main-d'œuvre coloniale en France pendant la Première Guerre mondiale", *Genèsis*, 20, p.51.

32) 알제리 이주민이라는 용어에 관하여, 식민지라는 특수 상황으로 1차 대전 시기의 알제리 이주민은 태어나면서부터 프랑스 영토 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이민자immigrés라는 용어의 사용이 모호한 면이 있다. 반면, 이주민은 하나의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의 이동이 전제되지 않는 개념이다. 1차 대전 시기의 알제리인의 이동은 대부분 노동이나 징병에 의한 이동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차 대전 시기 알제리로부터 프랑스로 이동한 알제리인을 '알제리 이주민'이라 지칭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알제리 이주민, 모로코 이주민, 튀니지 이주민 또한 '마그렙 이주민'이라 지칭한다. 또한, 본고에서 이주민을 'immigrés'라 표기하는 것은 알제리 이주민을 비롯한 마그렙 이주민들이 분절된 공간으로 이동한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주민에 대한 상세한 정의는 *Recensement de la population: Les migrations résidentielles, Version 1<sup>er</sup> juillet 2009*, INSEE. (<http://www.insee.fr/fr/publics/communication/recensement/particuliers/doc/fiche-migrations.pdf>).

33) 이는 오늘날의 이주민, 이민자, 외국인과 관련한 고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통계청)의 정의에 따르면, 이주민은 국적에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공간상 이동을 한 이를 가리킨다. 외국인étranger은 프랑스에 거주하지만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로,<sup>34)</sup> 그리고 이민자immigrés는 프랑스 영토 외에서 외국인으로 태어나 프랑스에 거주하는 이로 INSEE는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민자는 외국인으로부터 프랑스에서 태어나 거주하는 이는 포함하지 않으며 귀화 등의 절차를 거쳐 프랑스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는 외국인으로 남는다.<sup>35)</sup> 따라서 이주민, 이민자 그리고 외국인의 개념에서 교집합은 존재하나 동일하거나 한쪽이 다른 쪽의 하위 개념으로 종속되지 않는다.

1차 대전 시기의 알제리인은 토착민으로서 외국인에 포함되지 않는, 노동을 전제로 프랑스 본토로 이동한 이주민으로 생각할 수 있다. 모로코와 같은 보호령의 원주민들 또한 노동을 전제로 프랑스 본토로 이동한 이주민이지만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알제리 이주민과는 차이를 가진다. 따라서 알제리 이주민과 보호령 이주민은 제도상의 위치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바탕으로, 1차 대전 시기의 알제리 이주민의 제도상의 지위를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그림-2>과 같다. <그림-2>에서 나타나듯이 알제리 이주민은 식민지 출신 이주민에 속하지만 보호령의 원주민들과 외국인으로 분류되지 않음으로 구별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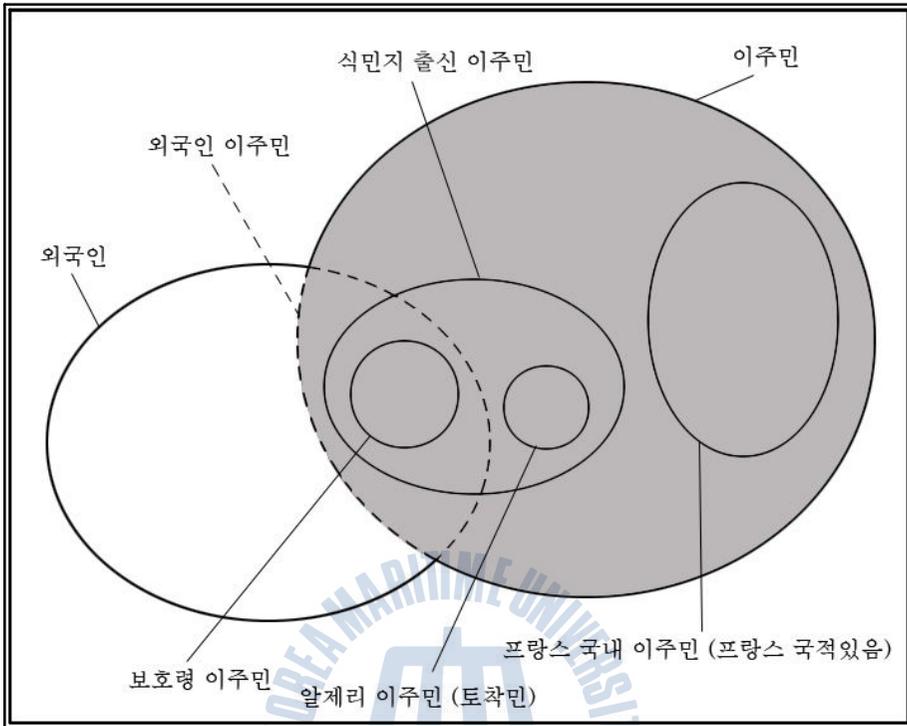
프랑스로의 알제리인 이주는 해외도로 편입된 후 자유로운 편이었으나, 1874년 5월 16일 프랑스 정부의 법령에 따라 알제리인이 프랑스로 이주하기 위해서는 여행허가증permis de voyage를 취득해야만 했고 1913년 6월 18일 새로운 포고령이 발표된 후 알제리인은 다시 자유로운 이동을 할 수 있었다. 프랑스에 거주하는 알제리인 수는 1910년에는 약 10,000명 정도에 불과했으나 1차 대전 시기에는 80,000여명에 달했다.<sup>36)</sup> 반면, 1920년까지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한 알제리인은 1,000여명이며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알제리인은

34) INSEE(<http://www.insee.fr/fr/methodes/default.asp?page=definitions/etranger.htm>).

35) INSEE(<http://www.insee.fr/fr/methodes/default.asp?page=definitions/immigre.htm>).

36) "The production of diaspora: Algerian emigration from colonialism to neo-colonialism (1840-1970)", *op. cit.*, p.44.

<그림-2>알제리 이주민의 제도상의 지위



각 집단의 제도상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일반적인 경우를 도시화한 것으로 시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일부 알제리인과 보호령의 원주민들은 배제하였다.  
 자료: 필자가 직접 작성.

2,396명에 불과하다.<sup>37)</sup>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볼 때, 1차 대전 시기 프랑스에 거주하던 알제리 이주민 중 프랑스 시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이는 소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제도상에서 1차 대전 시기의 알제리 이주민은 식민지 출신 이주민으로서 보호령 이주민들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외국인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알제리 이주민은 국적에서 보호령의 이주민들과는 구별되는 동시에 토착민으로서 프랑스인과는 차별되는 지위를 가지기도 한다. 한편, 시민권 취득, 산업에서의 이주민 배치와 관련된 문제에서 알제리인을 종교 또는 민족

37) *Le statut des musulmans en Algérie coloniale, Une nationalité française dénaturée*, o p. cit., p.9.

적 범주로 분류하는 프랑스인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이는 무슬림으로 대표될 수 있는 마그렙의 범주로의 알제리인에 대한 타자인식과도 연결된다.

1차 대전 시기는 프랑스로의 알제리 이주민의 대규모 유입이 처음으로 발생한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르아브르의 알제리 이주민에 대한 보편적인 타자 인식은 식민 관계에서 비롯되는 전통적 타자인식의 연장선상에 있을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 2. 르아브르 주민과 알제리 이주민의 경계 설정

### 2.1. 1차 대전 시기 르아브르의 이주민 유입 배경

1차 대전의 시작과 함께 프랑스 사회는 극심한 노동력 부족과 불균형을 겪는다. 18세~39세의 남성들은 전선으로 보내어지거나 군수·무기의 제조와 수송 등에 관련된 회사에 배치되었다.<sup>38)</sup> 이러한 갑작스러운 노동력 징발은 노동력의 부족과 불균형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노동력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프랑스 정부는 주로 국경이 인접한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유럽국가와 프랑스의 식민지에서 노동자를 모집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외교적 지원을 받아 기업들의 주도 하에서 이루어졌다.<sup>39)</sup> 이러한 갑작스러운 대규모의 이주민 유입은 프랑스 사회로서는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이었다.

이미 19세기부터 프랑스 내의 이주민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1850년경의 출산을 저하와 알제리를 주된 지역으로 한 식민지 지역으로의 이주 장려 정책은 인구 증가의 폭을 둔화시켜 노동력의 부족을 가져왔다. 노동력의 부족은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지역으로부터의 이주민의 유입으로 이어졌다. 1890년에는 이미 이주민의 수가 1,000,000명에 이르렀고 1차 대전 직전까지는 이주민의 증가폭이 둔화되어 1,180,000명에 머물렀다.<sup>40)</sup>

1차 대전을 전후로 이주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차 대전 이전에는 지속적이고 장기적 이주로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다. 1차 대전 시기의 이주는 이전에 비하여 단기적이지만 체계적인 성격을 띠었고 그 숫자에 있어서도 주목할 만한 것이다. 1906년에 프랑스의 경제활동인구 통계

38) *Labor and politics in France: Le Havre, 1913-1923, op. cit.*, p.118.

39) Gary S. Cross(1980), "Politics of Immigration in France during the Era of World War I", *French Historical Studies*, Vol. 11, No. 4, publications of Duke university, p.616.

40) *Ibid.*, p.611.

에서 외국인은 617,126명으로 총 경제활동인구의 2.98%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1926년의 통계에서는 두 배 이상 증가하여 1,378,098명으로 6.4%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이주의 경향 속에서 르아브르에도 1차 대전 당시 많은 이주민이 유입되었다. 르아브르는 프랑스의 역사에서 대서양과 프랑스를 이어주는 주요 거점이었다.<sup>41)</sup> 또한 프랑스 북동부의 산업지역이 독일군에게 점령당하면서 이 지역

---

41) 프랑스의 역사에서 르아브르는 대서양과 프랑스를 잇는 주요 항이었다. 파리의 북쪽 센스 강 하구에 위치한 아르프뢰르Harfleur 지역은 중세 이후, 프랑스에서 북해와 인접한 항구로의 역할을 해왔다. 11세기 아르프뢰르가 노르망디 공국의 항구였던 시기에 시작된 침적현상으로 15세기에 이르러 항구는 기능을 점차 소실했고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1478년과 1513년에 이 지역에 대한 탐색작업이 있었고 1517년 프랑소아 1세는 아르프뢰르 남서쪽 지역, 현재의 르아브르 지역에 항구 건설의 명령을 내렸다. 항구 건설의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프랑스는 영국과의 백년전쟁 이후, 영국에 대한 견제가 필요했으며 스코틀랜드에 대한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 센스 강 하구에 요새가 필요했다. 둘째, 프랑스에게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 신항로개척은 새로운 경제적 기회로 다가왔고 프랑스는 대서양으로 나아가는 항구가 필요했다. 셋째, 이러한 요구들을 수용하기에 아르프뢰르, 루앙과 옹플뢰르Honfleur는 부적합한 항구였다. 1523년 항구는 완성되었고 도시의 이름은 축복의 항구라는 뜻을 가진 프랑스어 르아브르 드 그라스Le Havre de Grace였다. 르아브르는 건설 당시부터 대서양으로 나아가는 거점 항이었고 프랑스의 국면과 깊은 관련을 가졌다. 17세기, 르아브르는 주로 서인도제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식민지와 프랑스를 이어주는 항으로 기능했다. 목재, 설탕, 커피, 면 등이 항구에 집산되었고 환적되어 센스 강을 따라 루앙과 파리로 보내졌다. 르아브르는 파리과 루앙의 거대한 창고였다. 1642년 르아브르 갈레옹 거리rue de Galleon에는 인도회사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1665년에 르아브르는 군항으로 선포되어 해군의 본거지가 옮겨왔고 변화한 공간 주변(현재의 파리 거리 동쪽)에 왕의 부두bassin de Roi가 건설되었고 조병창arsenal이 건설되어 도시는 무역과 멀어졌다. 1716년 8월 2일 르아브르는 노예무역 실행에 관련된 무장의 권한을 부여받아 무역은 다시 증가한다. 르아브르의 쌍 프랑소아Saint-François에 담배공장이 건설되었으며, 18세기에 르아브르는 삼각노예무역의 허브 항으로 60여명의 선주가 400여대의 배가 무장을 할 정도로 노예무역이 활발한 도시였다. 18세기에 프랑스가 2번에 걸친 파리조약으로 인해 식민지의 대부분을 상실했지만 르아브르는 1784년 르아브르-뉴욕 간의 정기항로가 최초로 연결되어 대서양의 항구로 위상을 확고히 했다. 19세기 프랑스 제국주의의 확장으로 르아브르의 무역도 다시 활발해졌으며 대서양과의 무역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1차 대전의 시기에 르아브르는 연합군의 거점이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르아브르의 무역은 줄었다. 1924년부터 1930년까지 식민지 무역은 약 155,000톤에서 450,000톤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했고 1934년에는 60,000톤이 더 늘어나 510,000톤이 되었다. 상품의 종류도 더욱 다양해져 1934년의 주요 교역품은 쌀(99,588톤), 옥수수(89,860톤), 와인(79,251톤), 카카오(24,724톤), 립주(23,737톤)였으며 어육, 차, 커피, 카카오, 면, 흑연, 열대과일, 후추, 타피오카, 꿀, 니켈, 식용녹말, 바구니 생산물 등도 거래되었다. 1927년의 총 거래량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서아프리카와 인도차이나에서 르아브르는 마르세유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1937년에는 120만 톤에 가까운 식민지와와의 무역이 있었으며 이는 19세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요

들의 역할을 새로운 지역들이 대신하였고 전시상황에서 많은 군사 물품의 제조와 수송이 요구되었다. 프랑스에 있어서 르아브르는 항구·산업 도시이자 연합군의 수송·교통의 중심으로 이전의 시기에 비하여 1차 대전 시기에는 더욱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되었다.

르아브르는 군수품 제조에서 주요도시가 되었으며 대서양과 프랑스 전선을 이어주는 주요 수입출항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르아브르의 선박들은 1차 대전 초기에 독일 잠수함에 의해 파괴된 후,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이었다. 전시상황에 기인하는 물가상승과 불투명한 무역으로 인해 선주들이 선박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의 해운회사들은 문을 닫거나 규모가 큰 해운 회사들에 합병되었고 트랑자Transat, Compagnie Générale Transatlantique<sup>42)</sup>와 같은 대규모 회사들은 정부로부터 수주를 받았고 세금 감면의 혜택이 주어졌다.<sup>43)</sup> 이는 시장에서의 과점과 지속적인 이익을 보증해주는 것이었다.<sup>44)</sup> 여러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상 운송은 급격히 늘었고 더 많은 노동력을 요하게 되었다.

해상 운송의 증가는 선박의 입출항수의 증가로 이어진다.<sup>45)</sup> 1차 대전의 시기 동안 르아브르는 1914년 이전의 시기와 비교하여 선박의 입출항수가 크게 증

컨대, 르아브르는 항구의 면적과 규모는 작은 편에 속하나 대서양과 프랑스 특히, 파리를 이어주는 항구로 활용되었고 북아프리카 이외의 식민지 무역과 큰 관련을 가졌다.

42) 대서양 기선회사, 프랑스에서 일반적으로 CGT로 표기하기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노동총동맹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트랑자로 표기한다.

43) *Labor and politics in France: Le Havre, 1913-1923, op. cit.*, p.118.

44) 실제로 1917년의 트랑자의 수익은 1913년에 비해 4배 증가하였다.

45) 1차 대전 동안 르아브르는 프랑스의 주요항으로 이전 시기보다 더 큰 역할을 수행했다. 아래의 선박 입출항수는 전시상황과 르아브르 산업의 관계를 보여준다.

<표-1> 1910년 대 르아브르 선박 입출항수

년	선박입출항수(단위: 척)
1912	12,466
1915	13,077
1918	21,901
1921	12,583

자료: *Labor and politics in France: Le Havre, 1913-1923, op. cit.*, p.553에서 인용.

가하였다. 선박의 입출항이 증가함에 따라 선박의 수리·보수 관련 산업들의 업무는 증가하였다. 르아브르에서 20세기 무렵까지 선박의 수리와 관련된 회사들은 선박부품제조의 일을 병행하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조선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미 선박 수리·보수업무를 그만 둔 선박부품제조 회사들이 많았다.<sup>46)</sup> 하지만 전시의 상황은 많은 선박들의 보수를 요구했고 선박부품제조 회사들은 다시 선박의 보수에 많은 참여를 하는 동시에 본업인 선박부품제조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르아브르는 전통적으로 선박 관련 산업 다음으로 제련·제철·금속가공 관련업이 주요산업이었다. 이러한 회사들은 군수품·무기 제조를 담당하게 되었다. 1차 대전 시기에 수입된 원자재들은 르아브르의 무기와 군수품 제조 회사들에서 가공되어 공장들은 활기를 띠었고 르아브르에는 추가적인 노동력이 필요했다.<sup>47)</sup>

이와 같이 1차 대전 시기의 르아브르의 산업은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였다. 국내로부터의 이주민, 여성 노동자들이 투입되었고 1915년부터는 중국, 베트남, 인도차이나 출신<sup>48)</sup> 그리고 마그레프 이주민과 같은 식민지 출신 이주민들이 유입되었다.

알제리 이주민은 1차 대전 이전부터 르아브르에 정착해 있었으나 대규모 이주는 1915년 봄에 이루어졌다. 1차 대전 시기의 이주는 대부분 노동 또는 징병을 전제로 하는 이주였으며 기간이 지나면 귀환하는 형태였다. 알제리 이주민의 인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1917년 르아브르에 약 1,000~2,000명의 알제리 이주민이 거주했던 것으로 판단된다.<sup>49)</sup>

46) 선박 수리·보수업무는 입출항수와 교역상황에 따라 불규칙적이어서 회사들은 선박부품제조 분야에 전력하는 것이 더 많은 이윤에 부합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부분의 선박부품제조업체들은 선박 수리·보수업무를 그만 둔 상태였다. Amphoux Marcel(1932), "Les industries du Havre", *Annales de Géographie*, t. 41, n°229, pp.34-36.

47) 1차 대전 동안 르아브르의 회사들은 많은 노동자를 고용했다. 슈나이더Schneider, 트레필리에Tréfieleries와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는 전시의 르아브르에서 주요한 회사이었다. 슈나이더의 경우 전쟁동안 여성 노동자 5,000명을 포함하여 총 12,5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였고 트레필리에에는 8,000여 명의 노동자를 고용했으며 웨스팅하우스는 2,000여 명의 노동자를 고용했다. *Labor and politics in France: Le Havre, 1913-1923, op. cit.*, p.12 1.

48) 르아브르 주민들은 인도차이나 이주민들도 중국인으로 불렀다고 한다.

## 2.2. 알제리 이주민의 법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

### 2.2.1. 출신과 직업

20세기 초, 프랑스로 유입된 알제리 이주민의 출신 지방은 <그림-3><sup>50)</sup>과 같은 분포를 보인다. 알제리 이주민은 주로 오랑 부근의 지방과 카빌Kabylie 지방을 중심으로 모집되어왔다.

카빌 지방은 19세기에 프랑스의 침략을 피해 알제리인이 모여든 곳이며 역병과 알제리 피난민의 유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sup>51)</sup> 이러한 경제 상황은 이주민의 모집을 용이하게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카빌 지방은 베르베르족이 밀집해 있던 곳이기도 한데, 당시의 자본가들 중 인종주의자들은 베르베르족에 대해 ‘동화assimilation가 빠른 이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sup>52)</sup> 1차 대전 시기 중 1917년 이전의 유입은 주로 카빌 지방에서 이루어졌다.<sup>53)</sup> 1917년 이전의 이주가 주로 자본가들의 모집에 의한 것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카빌 지방의 열악한 경제 상황<sup>54)</sup>과 베르베르족에

49) 1차 대전 시기에는 프랑스에서 정확한 인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존 바르즈만에 따르면, 1917년 르아브르에 마그렙 이주민이 5,000명이 있었다. 한편, 엘리자베스 제임스는 마그렙 이주민(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이주민)이 인구밀집지역에 거주하여 인구조사가 어려웠지만 당시 공무원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1917년 1월 1330명의 알제리 이주민으로 판단되는 북아프리카 자유토착민이 있었으며 12월에는 866명의 북아프리카 자유토착민과 500명의 징병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또한, 3지역 사령부의 루비에Rouvier 장군의 보고서에는 2,000명의 북아프리카 자유민이 르아브르에 거주하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한편, 징병노동자 중에도 알제리 이주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밀입국의 가능성과 1차 대전 이전부터 거주했던 알제리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1917년 르아브르의 알제리 이주민의 수는 1,000에서 1,500명 사이로 생각된다. *Labor and politics in France: Le Havre, 1913-1923*, op. cit., p.156.; "Travailleurs étrangers et coloniaux au Havre 1880-1962", op. cit., p.48.

50) "The production of diaspora: Algerian emigration from colonialism to neo-colonialism (1840-1970)", op. cit., p.43.

51) *Le Havre colonial de 1880 à 1960*, op. cit., p.549.

52) "The production of diaspora: Algerian emigration from colonialism to neo-colonialism (1840-1970)", op. cit., p.45.

53) Claude Malon(2004), "Travailleurs étrangers et coloniaux au Havre 1880-1962", *Migrants dans une ville portuaire Le Havre (XVI<sup>e</sup>-XXI<sup>e</sup> siècle) Sous la direction de John Barzman et Éric Saunier*, Universités de Rouen et du Havre, p.44.

54) *Le Havre colonial de 1880 à 1960*, op. cit., p.549.

<그림-3> 알제리 이주민 주요 출신 지역 분포



자료: "The production of diaspora: Algerian emigration from colonialism to neo-colonialism (1840-1970)", *op. cit.*, p.43의 그림을 재구성.

대한 자본가들의 선호는 알제리 이주민 모집이 주로 카빌 지방에서 이루어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1차 대전 시기 르아브르의 알제리 이주민 또한 프랑스의 일반적인 상황과 마찬가지로 오랑과 카빌 출신으로 이루어졌다. 1912년 르아브르 군수 sous-préfet의 보고서에 따르면, 오랑 지방 출신의 알제리 이주민이 웨스팅하우스 Westinghouse<sup>55)</sup>에서 숙련직으로 고용되어 있었으며 부두와 트랑자에서 알제리 이주민<sup>56)</sup>과 모로코 이주민을 고용하고 있었다.<sup>57)</sup> 1차 대전 시기의 알제리 이주민을 포함한 마그레브 이주민들은 대부분 비숙련직에 종사했던 것에 반해 오랑 출신의 알제리 이주민은 숙련직으로 고용되었다.

55) 차량생산회사

56) 1914년 이전의 알제리 이주민의 수에 관하여, 해외도 출신의 이주민이 소수인 점을 미루어 볼 때, 1912년에 고용되어 있는 알제리 이주민의 수는 소수로 판단된다.

57) "Travailleurs étrangers et coloniaux au Havre 1880-1962", *op. cit.*, p.44.

그러나 1차 대전 시기의 알제리 이주민들의 직업은 부두 하역 작업과 같은 단순 노무였으며 다른 마그렙 이주민과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알리멘타시옹frigorifiques de l'allémentation<sup>58)</sup>은 오직 알제리 이주민만을 고용하였으며 1920년 르아브르 주민들이 마그렙 이주민의 귀환을 요구할 때 ‘알제리인은 프랑스인’이라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시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sup>59)</sup>

한편, 1915년부터 1916년까지의 알제리 이주민은 주로 카빌 지방 출신자들로 이루어졌다. 카빌 지방 출신의 알제리 이주민은 주로 시 관할의 환경미화원으로서 고용되었다.<sup>60)</sup>

### 2.2.2. 사회빈곤과 임금

1차 대전으로 인한 벨기에로부터의 피난민의 유입, 국내와 식민지를 포함한 국외로부터의 이주민 유입, 연합군의 유입으로 르아브르의 인구는 1911년에 136,159명이었으나<sup>61)</sup> 전쟁 기간 동안 르아브르에 거주하고 있던 이의 수는 2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sup>62)</sup> 인구의 유입과 더불어 군수물자 조달로 인한 철도와 해상 운송의 병목현상으로 물자 수송은 원활하지 못하였고 르아브르의 소비재의 부족을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인구의 급증과 소비재의 부족으로 르아브르는 공공재 부족, 범죄율 증가를 겪었고 시민들의 불안은 커졌다. 이와 함께 르아브르의 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sup>63)</sup> 더욱이, 르아브르의 노동자의 임금상승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1916년 기준으로, 어업 노동자의 경우 1차 대전 이전 시기보다 0.5프랑이 인상되었을 뿐이었고 다른 직종의 경우도

58) 냉동 창고업 회사.

59) *Le Havre colonial de 1880 à 1960, op. cit.*, p.532.

60) *Ibid.*

61) 르아브르의 인구에 관하여, 1차 대전 이후부터 오늘 날까지 르아브르의 교외지역인 라벨, 브레빌 Bléville, Sanvic, Rouelles, 아르프뢰르의 Harfleur 일부가 르아브르에 편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20만 명 이상이었던 시기는 오직 1968년부터 1982년까지의 시기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62) "Algériens, Marocains et Tunisiens de 1914 à 1920", *op. cit.*, p.87.

63) 1차 대전 시기 르아브르의 물가상승은 극심했다. 주요 소비품의 르아브르의 물가변동은 아래와 같다.

비슷한 상황이었다.<sup>64)</sup> 1차 대전 시기 중, 1917년에 르아브르는 가장 극심한 빈곤을 겪었다.<sup>65)</sup> 난방용 연료, 조리용 가스, 빵, 고기 등의 주요한 품목의 부족이 이어졌다.<sup>66)</sup>

이와 같은 사회의 빈곤 속에서, 알제리 이주민은 이주 노동자로서 식민지 출신 노동자와 같이 분류되었다. 식민지 출신 노동자는 프랑스 시민과 같은 임금

<표-2> 1차 대전 시기 르아브르의 물가변동

품목	물가변동 (F=프랑)	등락폭
빵 (3kg)	-1914년 6월 1.20F -1918년 12월 1.80F -1920년 1월 2.90F	242%
우유 (1리터)	-1914년 7월 0.20F -1918년 10월 0.70F -1919년 2월 0.90F	450%
계란 (12개)	-1913년 10월 2.10F -1919년 2월 6F 또는 7F	285~333%
감자 (1kg)	-1913년 10월 0.15F -1918년 7월 0.60F -1919년 12월 0.65F	433%
당근 (1kg)	-1913년 10월 0.10F -1918년 7월 1.70F -1919년 9월 0.60F	600%
소고기 (1kg)	-1913년 1.40F -1919년 11월 5.01F	358%
석탄 (1톤)	-1차 대전 이전 23F -1918년 5월 122F -1919년 9월 220F	957%

자료: *Labor and politics in France: Le Havre, 1913-1923*, op. cit., p.126의 문헌을 재구성.

64) *Ibid.*, p.145.

65) 1917년의 르아브르의 빈곤은 여성노동자의 생활에서 엿볼 수 있다. 전선에서 여성들 또한 주요 노동력 집단이었다. 전선에 나간 남자들을 대신해 가정을 부양하려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주로 군수 공장에서 일을 했다. 여성 노동자들은 새벽에 일어나 제분소와 빵을 파는 가게 앞에서 식량을 획득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지만 모든 이에게 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일자리를 구한 여성은 다행이었지만 군에서 지급하는 남편의 임금에 의존하여 사는 이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 교육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나타났다.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없었다. 아이들은 제대로 먹을 수 없었고 더욱이, 학교의 대부분은 정부가 병영으로 징발한 터라 징발에서 남은 몇몇의 학교에 학생들이 모두 몰렸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학교에 다녀야 할 시기의 아이들 중 1/3만이 수업에 참석했다. "Algériens, Marocains et Tunisiens de 1914 à 1920", op. cit., p.89.

66) 시municipalité 차원에서 과도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1917년 1월, 설탕 배급 카드를 만들고 가스와 전기의 사용에 최고 한도를 설정했으며 1917년 4월에는 가솔린과 난방용 기름의 한도를 만들었고 5월에는 석탄에 대한 한도를 만들었다. 1919년까지 이러한 배급과 한도설정에는 몇 번의 조정이 있었다.

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회사들도 이러한 규정을 준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지급액은 프랑스 노동자들과 동등하지 않았다. 1919년 기준으로 의료비·숙박비·관리비 등의 경비를 제외하고 항만회사인 트라보 뒤 포트 Travaux du Port는 4프랑을 지급했으며 조선소인 오거스틴 노르망드 Augustin Normand는 5프랑을 금속 관련업 회사인 바소 Bassot는 6.50프랑을 지급했다.<sup>67)</sup> 이는 용돈과 다를 바 없었다. 더욱이 1917년 베르틀로 사건에 대한 처벌로 알제리 이주민과 일부 마그레브 이주민을 제외한 식민지 출신 이주민들은 공장의 숙소나 병영에 강제 수용되었으며 이들은 임금의 절반을 숙박비로 반환하도록 요구받았다.<sup>68)</sup> 1차 대전 당시 급격한 물가상승과 르아브르가 프랑스 내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지역 중 하나이었음을 감안하면 실제로 식민지 출신 노동자의 임금의 가치는 최저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과중한 업무와 빈곤에 시달렸으나 이들에게는 파업의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 2.2.3. 규제와 거주

1차 대전 시기 프랑스에서 알제리 이주민은 이주 노동자의 규제와 관련된 분류에서 프랑스의 보호령이었던 모로코, 튀니지 등의 출신자들과 함께 식민지 출신 노동자로 분류되었다. 식민지 출신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거주지와 종사 직종과 관련한 규제가 뒤따랐다. 1917년 4월 내무부는 <그림-4>의 통행신분증 carte d'identité et de circulation과 같은 새로운 통제 방법을 고안해냈다. 신분증에는 거주가 가능한 구역과 종사 가능한 직업에 대해 기입되어 있었다.<sup>69)</sup> 당시 프랑스 정부는 외국인과 식민지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중심가로 몰릴 것과 높은 임금을 받는 직종에서 프랑스인들과 경쟁할 것에 대해 염려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신분증 제도는 직종과 거주지의 이동을 제한하여 산업의 불균형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이었으나 이는 식민지 출신

67) *Le Havre colonial de 1880 à 1960, op. cit.*, p.535.

68) "Algériens, Marocains et Tunisiens de 1914 à 1920", *op. cit.*, p.89.

69) "Politics of Immigration in France during the Era of World War I", *op. cit.*, p.617.

<그림-4> 식민지 출신 이주민의 신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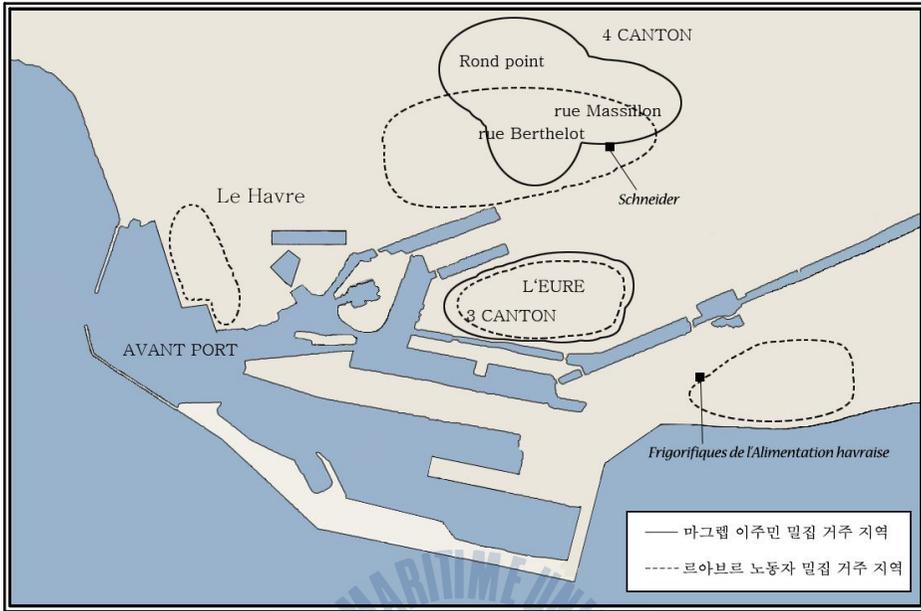


자료: *Le Havre colonial de 1880 à 1960, op. cit., p.560*에서 인용.

노동자와 외국인노동자의 거주 및 이직을 제한하여 사회의 하층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차 대전 시기의 식민지출신 이주민은 자유노동자 *travailleurs libres*와 징병노동자 *travailleurs militalisés*로 분류된다.<sup>70)</sup> 징병

70) *Le Havre colonial de 1880 à 1960, op. cit., p.536.*

<그림-5> 1차 대전 시기 르아브르 인구 밀집 지역



해안선과 행정구역은 1910년대의 것으로 현재의 르아브르와 차이가 있음.

자료: 아래의 문헌<sup>71)</sup>을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

노동자는 정해진 병영, 회사의 막사에 거주해야 했다. 반면, 자유노동자는 도시 내에 거주할 수 있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징병노동자들과 같은 숙소에 거주하기도 하였다.

한편, 르아브르의 마그렙 이주민의 거주지는 <그림-5>에서 나타나듯이 주로 제 3지역구canton<sup>72)</sup>와 제 4지역구에 집중되었다. 알제리 이주민은 위르 지구 quartier de l'Eure와 베르틀로 거리를 중심으로, 모로코 이주민은 롱-포양지구 quartier de Rond-point, 베르틀로 거리, 마시옹 거리rue Massillons에 집중

71) *Labor and politics in France: Le Havre, 1913-1923, op. cit.; Le Havre colonial de 1880 à 1960, op. cit., pp.532-549.; "Algériens, Marocains et Tunisiens de 1914 à 1920", op. cit., pp.84-94.*

72) 깡통은 별도의 예산을 집행 받는 행정단위는 아니며 지방선거에서 하나의 선거구가 된다. 이는 코뮌commune보다는 크며 아롱디스망arrondissement보다는 작은 규모의 단위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되어 거주하였다. 제 3지역구와 제 4지역구는 선박수리소, 물류창고, 공장들이 밀집되어있고 항만 노동자와 금속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르아브르의 노동자들이 밀집되어있던 곳이다.<sup>73)</sup> 더욱이, 알제리 이주민을 포함한 마그렙 이주민들은 주로 프랑스인들의 집에 하숙하는 형태로 거주하였다. 따라서 르아브르 주민과 마그렙 이주민의 공간적 응집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3. 외국인혐오증

1차 대전 시기 르아브르는 제노포비아(xenophobie<sup>74)</sup>의 요건을 고루 갖추고 있었다. 김세균에 따르면, 제노포비아는 이방인에 대해 민족·문화·국가에 관계 없이 정체성 유지, 자기 보존을 위해 합리성에 부합되지 않는 배타적인 성향을 가지는 것이다. 제노포비아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요인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외국인 비율, 시·공간의 응집도, 노동시장 구조, 사회적 안전장치를 들 수 있다. 또한 제노포비아를 심화 또는 약화시키는 요인으로는 법·제도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통합 방식, 국적 부여 원칙과 정치·사회문화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시민교육, 미디어, 역사적 경험, 극우정당에 의한 동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이 응집하여 제노포비아의 결과로 나타난다.<sup>75)</sup>

1차 대전 이전 르아브르의 외국인 비율은 프랑스 평균의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았으며 대다수는 유럽계 이주민이었다.<sup>76)</sup> 1차 대전 시기 르아브르에는 연합군, 벨기에로부터의 피난민, 외국인 이주민, 식민지 출신 이주민이 함께 거주했다. 1차 대전 후, 1921년은 1차 대전 시기에 유입된 집단들 중 다수가 귀환

73) *Labor and politics in France: Le Havre, 1913-1923, op. cit., p.13.*

74) 제노포비아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혐오증’으로 인식되나, 이는 심리학적 개념으로 이방인에 대한 불쾌감 또는 거부감을 말한다. 따라서 국적이 다른 ‘외국인’이라는 의미에 국한되기도 다 심리적 의미의 이방인, 타자에 대한 거부감으로 넓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75) 김세균 외(2006), 『유럽의 제노포비아』, 문화과학사, pp.28-30.

76) 1차 대전 후, 피난민, 단기 이주 노동자, 연합군 등과 관련한 인구들이 모두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1921년 르아브르의 외국인 비율은 1911년의 두 배였다. 이 시기의 프랑스 전체 외국인 증가율과 비교했을 때 르아브르의 외국인 증가율은 높은 편에 속한다. 1911년과 1921년의 프랑스와 르아브르의 외국인 비율은 아래와 같다.

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르아브르의 외국인 비율은 1911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1차 대전 시기의 르아브르의 외국인 비율은 1921년보다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sup>77)</sup>

이와 같이 대규모 이방인의 유입으로 1차 대전 동안 르아브르의 인구는 1차 대전 이전보다 2배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구밀도도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5>에서 나타나듯이 르아브르 노동자들의 거주지에 마그렘 이주민은 밀집되어 거주했으며 거주 형태 또한 프랑스인의 집을 임대, 하숙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르아브르 주민과 마그렘 이주민의 공간적 응집도는 상당히 높았다.<sup>78)</sup>

한편, 노동시장의 구조는 프랑스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 간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1915년 경, 이미 실업은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였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르아브르의 사회적 빈곤은 심각한 상황이었고 식민지 출신 이주민의 유입은 끊이지 않았다. 르아브르의 노동자들은 식민지 출신 노동자들과 대립 관계에 있었다. 특히, 르아브르의 노동자들이 임금 협상을 위해 파업을 하는 동안 고용주는 식민지 출신 노동자들로 노동력을 대체하였고 파업은 무력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1918년 노동자들은 파업에서 식민지 출신 노동자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표-3> 1911년, 1921년 프랑스와 르아브르의 외국인 비율

년	르아브르의 외국인 비율 (%)	프랑스의 외국인 비율 (%)	르아브르 인구 (단위: 명)
1911	1.3	2.9	136,000
1921	2.9	3.9	163,374

자료: "Travailleurs étrangers et coloniaux au Havre 1880-1962", *op. cit.*, p. 45의 표를 재구성 한 것임.

77) 알제리와 세네갈과 같은 해외도로부터 온 이주민(토착민)을 더한 이방인의 비율은 외국인의 비율보다 더 높을 것이다.

78) 위르 지구에는 영국군의 캠프도 있었다. 영국군은 중국 출신 이주민들을 르아브르에서 노동 하도록 하였다. Claire Étienne-Steiner(2005), *Le Have -un port, des villes neuves-*, Centre des monuments nationaux, p.196. 중국 출신 이주민들 중 다수는 영국군의 캠프에서 생활하였다. 따라서 위르 지구에는 마그렘 이주민 외에도 다수의 중국 이주민들 또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공간적 응집도를 더욱 높게 했을 것이다.

또한, 르아브르 주민들은 이방인과의 동거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르아브르에서의 19세기 말 외국인 거주민의 수는 다른 항구도시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프랑스의 평균에서 절반 정도의 수준이다. 19세기 말 릴Lille에는 40,000명의 벨기에인들이 거주했으며 마르세유에는 60,000명의 이탈리아인들이 거주했던 것에 비해 르아브르의 외국인 거주자는 3,000여 명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외국인 거주민은 대부분 유럽 출신의 사람들이었다.<sup>79)</sup> 이는 르아브르 주민들에게 있어 이방인과의 동거가 생소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으며 식민지 출신 이주민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1917년 4월 7일에 발행된 르아브르의 일간지인 『르 뺨띠-아브르』 *Le petit-havre*<sup>80)</sup>에 실린 한 사설<sup>81)</sup>에서 르아브르 주민이 외국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안을 확인할 수 있다.

“불신의 분위기가 많은 수의 외국인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조성되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달갑지 않은 이들을 배제시킬 필요가 있고 우리 프랑스 주민들에게 위협적인 모든 영향을 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sup>82)</sup>

프랑스는 민족적·인종적 차별 없이 국민과 국가와의 계약에 근거한 국민국가의 기본 틀을 가지지만 현실적으로 당시의 민족학과 식민사관은 인종차별과 민족차별을 만연하게 했고<sup>83)</sup> 식민지 시기의 동화주의 틀 속에서 행해진 식민지

79) 외국인이주민의 구성비에 관해서, 1891년 르아브르의 외국인 거주민 수는 2,297명이며 유럽 출신이 2,200명 아메리카 출신은 65명, 기타가 32명이다. Eric Sauner(2004), "Les migrants étrangers et le Havrais: le legs du passé", *Migrants dans une ville portuaire Le Havre (XVI<sup>e</sup>-XXI<sup>e</sup> siècle)*, Universités de Rouen et du Havre, p.35.

80) 1차 대전 시기 이전 르아브르에는 세 개의 지역일간지가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1차 대전 시기에 언론 통제를 실시하여 두 개의 지역일간지가 폐간되고 『르 뺨띠-아브르』 만이 간행되었다.

81) 이와 같은 사설은 제노포비아의 결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미디어의 동원으로 제노포비아를 심화시키기도 한다.

82) "Algériens, Marocains et Tunisiens de 1914 à 1920", *op. cit.*, p.87에서 인용.

83) 이정옥(2010), 『프랑스 사회갈등과 통합 - 무슬림 이민자 차별과 배제를 중심으로 -』, 부

정책이 문화의 우월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은 주지된 사실이다.

김세균은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인종적 우월감이나 문화적 우월감에 기반을 두어 심화된다면 이주민과 자국민들과의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경쟁 등에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한다.<sup>84)</sup>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유럽계 외국인들보다 식민지 출신 이주민과의 갈등이 더욱 심했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결국, 식민지 출신 이주민들 중 마그렙 이주민과의 갈등은 1917년 베르틀로 사건을 시작으로 최고조에 달했다.

알제리 이주민은 토착민의 범주에 속하는 동시에, 르아브르 사회에서 여러 범주로 인식되었다. 알제리 이주민은 사회경제적 차원에서의 거주와 이동에 대한 규제에서 뿐만 아니라 종사 직종과 임금에서도 식민지 출신 노동자들과 같은 입장에 있었다. 또한 르아브르 주민들의 일반적인 타자인식에서는 이방인이라는 범주로 인식되기도 하며 제노포비아에서 발전된 인종적, 문화적 갈등에서는 마그렙 이주민의 범주 안에서 이해되었던 것이다.

결국, 알제리 이주민에 대한 르아브르 프랑스인들의 이러한 타자인식은 베르틀로 사건을 계기로 하여 새로운 타자인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

경대학교, p.223.

84) 『유럽의 제노포비아』, p.29.

### 3. 알제리 이주민에 대한 타자인식 변화

#### 3.1. 르아브르 주민-마그렘 이주민 갈등 표출: 베르틀로 사건

앞서 살펴보았듯이 1917년 르아브르의 빈곤과 외국인혐오증은 최고조에 달해있었다. 결국, 1917년 6월 17일 르아브르의 베르틀로 거리<sup>85)</sup>에서는 마그렘인과 르아브르 프랑스인의 폭력사건이 발생한다. 베르틀로 사건<sup>86)</sup>의 촉발은 르아브르 주민과 모로코 이주민을 중심으로 한 마그렘 이주민간의 충돌에서 비롯되었지만, 알제리인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타자인식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17년 6월 17일 일요일, 휴가를 나온 프랑스인 군인과 모로코인 사이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베르틀로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주위에 이 상황을 보고 있던 르아브르 주민들은 동향인(同鄉人)을 거들기 시작하였다. 주위의 프랑스인들 역시 서서히 몰려들어 군중을 이루기 시작하였고 이들은 프랑스 군인의 편을 들었다. 르아브르 주민들과 모로코인들 간에는 격렬한 설전이 오갔고 다툼을 지켜보던 프랑스인들은 격앙되었다. 결국, 사소하게 끝날 수도 있었던 소동은 점점 커져가기 시작했고 주위에 몰려든 군중은 300명에서 400명 사이에 이르렀다.<sup>87)</sup> 성난 군중들은 베르틀로 거리로부터 노르망디 거리에 이르는 지역 일대에 몰려다니며 마그렘인들을 집단 폭행하기 시작했다. 1920년 1월 22일 르아브르의 지역 신문인 『르 뻬띠-아브르』는 “르아브르 주민들은 노르망디 거리, 베르틀로 거리 일대에 알제리인들과 모로코인들이 은신처로 차 있었던

85) 베르틀로 거리는 마그렘 이주민들의 거주지가 집중되었던 곳이다. 오늘 날에도 베르틀로 거리에서 중국어, 아랍어의 간판을 내건 상점과 식당, 아프리카 풍의 복장을 한 이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86) 1917년 6월 17일 베르틀로 거리에서 벌어진 프랑스인과 마그렘인의 충돌에 의한 사건을 가리키는 특별한 명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 사건을 베르틀로 사건이라 한다.

87) Elizabeth James(2004), "Port du Havre et travailleurs d'Afrique Nord", *Enviroments portuaires*, Université de Rouen et du Havre avec de la concours de Conseil Général de la Seine-Maritime, p.399.

베르틀로 주변의 집들을 포위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많은 모로코인들과 ‘아랍계 사람’들이 거칠게 다뤄졌다”라고 베르틀로에서 벌어진 사건을 묘사하였다.<sup>88)</sup>

경찰이 도착하였고 사건의 수습에 나섰다. 모로코인 18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호송되었으며 2명이 사망했다.<sup>89)</sup> 경찰은 나머지 모로코인들을 안전을 위한 격리를 목적으로 그라빌 요새 fort de Graville로 호송하였다. 또한,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모로코인 4명을 프랑스인 살해에 대해 적극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했고 사건은 일단락 지었다.<sup>90)</sup>

베르틀로 사건은 계획된 사건이 아니며 우발적인 사건이었다. 따라서 르아브르의 프랑스인들 사이에 형성되었던 집단 의식이 사전 계획 없이 표출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베르틀로 사건은 르아브르의 프랑스인들과 마그렙 이주민 간의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를 계기로 1920년까지의 르아브르 주민과 마그렙 이주민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베르틀로 사건은 정부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주민과 마그렙 이주민 간의 갈등을 실감하고 있었으나 1920년대 초의 재건 사업에서 마그렙 이주민들은 필수적인 존재였다. 따라서 그들과의 동거는 불가피한 사항이었다.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인들로부터 마그렙 이주민에 대한 보호와 장기적이며 계획적인 이주 정책의 필요성을 실감했다. 이주민에 관한 정책들 중 대표적인 예로, 마그렙 사람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무어 카페 café maure<sup>91)</sup>를

---

88) *Le Havre colonial de 1880 à 1960, op. cit.*, p.535에서 인용.  
89) 베르틀로 사건의 사상자에 관하여, 1917년 6월 19일자 『르쁘띠-아브르』에서 부상 19명, 사망 3명이라 기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사건의 결과로 경찰이 모로코인을 고소할 때 프랑스인을 ‘살인’한 것에 혐의를 둔다. 이에 미루어 짐작컨대, 프랑스인 1명이 사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ort du Havre et travailleurs d'Afrique Nord", *op. cit.*, p.400.  
90) *Ibid.*  
91) 무어 카페에는 마그렙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미지의 정육점, 식료품점, 채소밭 등이 있었다. 마그렙 사람들이 둘러 앉아 차를 마시기도 했다. *Le Havre colonial de 1880 à 1960, op. cit.*, p.537. 카빌 사람들이 주로 출입한 이유는 파리로 이주한 포르투갈 농민의 사례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포르투갈 농민들은 도시 출신의 포르투갈인들과는 달리 자신의 고향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들은 고향에서 감자 등을 가져와 먹곤 했다. 카빌은 베르베르인의 본거지이자 알제리의 산악 농경 지역으로 프랑스인들에 의한 식민화가 늦게 진행된 지역이다. 물론 카빌 사람들을 포르투갈 농민의 경우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 포르투갈 농민들의 전통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자 한 노력과 같은 맥

정부 차원에서 설립하고자 한 것을 들 수 있다. 무어 카페의 위치는 마그렘 노동자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세워졌고 마그렘 사람들이 출입하긴 하였으나 카빌 사람들이 주로 출입하였다. 정부에서 프랑스인과 마그렘 이주민 간의 갈등에 대한 대책들이 논의될 때 베르틀로 사건은 논의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주요한 사례가 되었다.<sup>92)</sup> 베르틀로 사건은 1차 대전 시기까지의 프랑스 정부의 단기적인 이주 정책이 장기적이며 계획적인 정책으로 전환하게 하는 중요한 사건 중 하나였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 3.2. 알제리 이주민은 외국인인가?

1차 대전 시기 르아브르 주민 사이에는 외국인 혐오증이 만연하였고 마그렘 이주민과의 갈등은 베르틀로 사건으로 표출되었다. 이전부터 르아브르 주민과 마그렘 이주민 간에 ‘우리’와 ‘그들’이라는 경계는 존재했다. 그러나 베르틀로 사건 이후의 갈등 양상을 살펴볼 때, 먼 타자로서 마그렘 이주민에 대한 경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1917년부터 1920년까지 르아브르 주민과 이주민 간의 폭력 사건들의 양상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표-4>와 같다. <표-4>를 통해 1차 대전 시기의 르아브르에서 발생한 르아브르 주민-외국인 이주민간의 갈등은 르아브르에 외국인 이주민으로서 다양한 출신(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중국, 인도차이나 등)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그렘 이주민에게 편중되어있음을 알 수 있으며 마그렘 이주민들 사이에서도 모로코 이주민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4>에서 나타나는 수치만으로 정확한 사상자를 말하기는 어렵다. 사상자가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 간 단위로 구별하였을 때 르아브르 주민과의 갈등 대상이 심각한 집단은 모로코 이주민으로

---

락에서 카빌 사람들이 다른 마그렘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향과의 유대관계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도 생각해볼 수 있다. 『사회과학에서의 문화개념』, p.183.

92) "Les usages du radicalisme. Le cas de la main-d'œuvre coloniale en France pendant la Première Guerre mondiale", *op. cit.*, p.58.

판단된다.

베르틀로 사건에서 주된 집단은 모로코 이주민이었다. 르아브르 주민과 모로코 이주민의 갈등은 모로코 이주민 중 대부분이 고국으로 귀환하는 1920년까지 지속적이었다.

르아브르 주민과 모로코 이주민의 갈등은 위르 지구 주변의 항만지역에서 주로 갈등이 일어났다. 노동 시장의 구조에서 비롯된 노동자 간 갈등이 많이 보인다. 1918년의 파업에서 노동자들은 모로코인이 작업장 근처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놀거나 도박을 즐긴다고 불만을 표했다. 르아브르 노동자와 모로코 이주민과의 갈등은 결국 다시 폭력 사건으로 이어졌다.

르아브르 주민과 모로코 이주민의 갈등은 위르 지구 주변의 항만지역에서 주로 갈등이 일어났다. 노동 시장의 구조에서 비롯된 노동자 간 갈등이 많이 보인다.

<표-4> 1914년~1920년 르아브르 주민-외국인 이주민 폭력사건

	출신국	부상	사망	직접관련사건 수
르아브르 주민	프랑스	0+	1	4
마그렙 이주민	<b>모로코</b>	<b>23+</b>	<b>4+</b>	<b>3</b>
	알제리	0+	0+	1
	튀니지	0+	0+	1
기타	-	1(벨기에인) +	0+	1 <sup>93)</sup>
총 계	-	24+	5+	4 (총 사건 수)

‘+’ 기호는 문헌상에서 살필 수 없는 사상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자료: 아래의 문헌<sup>94)</sup>들을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

93) 포제 드 샤페르 드 라 메디테랑Forges de Chantiers de la Mediterranee에서 일하는 중국인 노동자들은 1918년 봄 ‘먹을 빵이 없다는 이유’로 파업을 벌였으며 결국 경찰과의 대치 상황으로 이어졌다. *Le havre colonial de 1880 à 1960, op. cit., p.534.*

94) "Algériens, Marocains et Tunisiens de 1914 à 1920", *op. cit., pp.83-95*; "Port du Havre et travailleurs d'Afrique Nord", *op. cit., pp.399-403*; "Labor and politics in France: Le Havre", *op. cit., pp.101-153*; *Le Havre colonial de 1880 à 1960, op. cit., pp.532-548.*

1918년의 파업에서 노동자들은 모로코인이 작업장 근처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놀거나 도박을 즐긴다고 불만을 표했다. 르아브르 노동자와 모로코 이주민과의 갈등은 결국 다시 폭력 사건으로 이어졌다.

1920년 1월 22일, 맘 부두 Bassin de Mame에서의 작업을 위한 노동자 모집이 있었다. 모로코인들에게 주어진 업무는 과중했다. 반면, 고용주들로부터 모로코인은 회피의 대상이 되었다. 모로코인들은 과중한 업무와 고용주로부터 회피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었다. 몇몇 모로코인은 항만 작업에 투입할 모집에서 고용에 불만을 품고 흥분한 상태에 있었던 동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였다. 모로코인들은 모집을 기다리고 있던 프랑스인을 잡아서 당기기도 했다. 이내 프랑스인과 모로코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프랑스인들은 격앙되어 모로코인들을 폭행하기 시작했다.<sup>95)</sup> 『르 뻬띠-아브르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3부두에서 약 백 명의 사람들이 모로코인 한명을 추격했다. 사람들은 모로코인을 죽일 것을 주장했다. 손실은 컸다. 5명의 프랑스인과 한 명의 벨기에인이 병원으로 간 반면, 7명의 모로코인들이 병원으로 갔고 이들 중 한 명이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중퇴로 죽어가고 있었으며, 나머지 다섯 명은 머리에 손상을 입었다.”<sup>96)</sup>

르아브르 주민과 모로코 이주민들과의 갈등이 특히 심각했지만 마그렙 이주민과의 갈등 또한 심각했다. 1919년 7월 21일 약 100여 명의 마그렙인들은 권총 50여발을 발포하며 제네랄 샹지 거리 rue Général Chanzy의 한 카페를 공격했다. 경찰의 보고서에 따르면 마그렙인들이 카페를 공격한 이유는 얼마 전부터 카페가 마그렙인의 출입을 금지했기 때문이다.<sup>97)</sup>

르아브르 주민들 사이에서 마그렙 이주민에 대한 불신은 커져갔다. 1919년

95) "Port du Havre et travailleurs d'Afrique Nord", *op. cit.*, p.399.

96) *Ibid.*에서 인용.

97) *Ibid.*, p.402에서 인용.

에 취임한 르아브르의 시장 레옹 메이에Léon meyer는 모로코인의 귀환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시장의 주장이 신속히 이행되지 않자 1920년 르아브르의 노동자와 상인 60명은 레나르드 거리rue Renard에서 시장에게 다음과 같은 탄원을 냈다.

“우리는 커져가는 침범으로부터 위협 받고 있습니다.…우리는 우리가 이 혐오스러운 토착민들과 혼종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인한 물리적 그리고 도덕적 위협에 대해 강조할 필요조차 없습니다.…시장님, 최근에 당신은 우리의 도시를 오염시키는 아프리카인들을 지체 없이 돌려보내겠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sup>98)</sup>

탄원에서 르아브르 주민들의 마그렙 이주민에 대한 불신이 확인되며, 제도상의 지위에 대한 고려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편, 마그렙 이주민에 대한 불신의 원인에 관한 레나르드 거리의 주부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인은 누구도 욕하거나 위협하지 않는다.…(하지만) 이 사람들과의 이웃관계는 레나르드 거리의 주민들에게는 공포를 준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와는 다른 도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sup>99)</sup>

주부의 증언에 따르면, 마그렙 이주민에 대한 불신은 구체적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마그렙 이주민에 대한 경계는 문화적인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르아브르 주민은 알제리인에 대한 경계를 국적 등과 관련된 제도적인 것과 관련하여 지은 것이 아니라 일종의 문화적 차별과 관련하여 지은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베르틀로 사건을 계기로 깊어진 마그렙 이주민의 불안과 관련하여 1919년 르아브르의 시의회에서도 마그렙 이주민의 귀환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98) *Le Havre colonial de 1880 à 1960, op. cit.*, p.536.

99) *Ibid.*, p.536에서 인용.

나왔다. 시의회에서 델리오Déliot 시의원은 “마그렙 사람들은 불청객”이라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르 샤프랭Le Chapelains 시의원은 마그렙 사람들을 격리시킬 것을 주장하며 “그들과 더욱 더 명확한 경계를 지어야 하며, 따라서 르아브르 사람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다른 곳에 거주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원들의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 당시 르아브르의 시장이었던 피에르 모르강Pierre Morgand<sup>100)</sup>은 시단위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며 국가 단위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의안을 마무리 했다.<sup>101)</sup>

비록, 르아브르 주민과 마그렙 이주민 간의 갈등에서 모로코 이주민을 중심으로 격렬한 사건들이 발생했지만, 르아브르 주민들 그리고 시의회에서 르아브르 사회 내에서 불신을 낳는 집단으로 규정된 것은 알제리 이주민을 포함하는 ‘마그렙 이주민’이었다. 결국, 베르틀로 사건을 비롯한 르아브르 주민들과의 갈등과 1919년 시의회에서 알제리 이주민은 마그렙이라는 경계로 해석되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 3.3. 가까운 타자와 먼 타자

프랑스인의 알제리 이주민에 대한 타자인식 변화는 베르틀로 사건의 결과로 공포되어진 디들로Pierre Jean Henri Didelot의 포고령arrêt에서 잘 엿볼 수 있다. 르아브르 지역이 소속되어 있는 제 3지역의 사령관Commandant de 3°Région이었던 해군 소장 디들로는 프랑스의 식민지 사업에서 큰 활약을 펼친 군인이다. 각지의 프랑스령 식민지들의 총독을 지내왔고 후에 모든 프랑스령 식민지를 총괄하는 총독으로 임명되기도 한다.

디들로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0여일 후인 1917년 6월 26일, 병영 또는 공장 내의 가건물을 수용소로 만들어 식민지 출신 노동자ouvriers coloniaux를 격리시킬 것을 르아브르의 회사들에게 건의하였다. 르아브르의 회사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트레필러리에는 이를 받아들여 약 500명에서 600명 정도의

100) 뵘에르 모르강은 중도공화주의자였다.

101) *Le Havre colonial de 1880 à 1960, op. cit., p.535.*

식민지 출신 노동자들을 병영에 수용하였으나 알리멘파시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명령을 거부하였다. 1917년 7월 1일에 디들로 소장은 군수 sous-prefét와 경찰청장 commissaire central에 이들을 수용할 일종의 수용소를 지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사실 상 수용소가 될 만한 건물이 충분치 않았으며 르아브르의 회사들은 이에 반발 하였다.

하지만 결국 1917년 7월 7일, 디들로 소장은 르아브르에서 프랑스인들이 식민지 출신 노동자에게 집을 하숙, 전세, 임대의 형태로 거주하게 해주는 것과 식민지 출신 노동자들 또한 시내에서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정된 공간에서 거주 하도록 하는 포고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프랑스 인의 집에서 거주하던 식민지 출신 노동자들이 쫓겨났고 이들은 경찰에 의해 수용소들로 보내어진다. 수용소는 여러 형태로 마련되었는데 식민지 출신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 내의 오래된 노동자 숙소나 막사를 새로 짓거나 확대하는 형태와 투르느빌 요새 fort de Tourneville와 안드레스 요새 fort de Adresse의 병영 캠프를 사용하는 형태로 마련되었다. 식민지 출신 노동자들을 격리시켜 르아브르 주민들의 불안을 줄이는 동시에 두 집단 간의 갈등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를 예방하여 전시 상황에서 치안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제는 디들로의 포고령의 대상자는 식민지 출신 노동자였고 알제리 이주민 또한 여기에 포함되었다는 데 있다. 7월 7일의 포고령이 공포되자 알제리 이주민들의 반발은 거세게 일어났고 포고령에 대해 항의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디들로 소장은 ‘알제리인을 외국인으로서 대하지 않을 것’에 대해 인정했고 알제리인들의 자유로운 거주를 허락했다. 이와 함께 디들로 소장은 프랑스인과 결혼한 일부 마그렙인들은 ‘프랑스어를 충분히 알고 프랑스의 생활과 관습을 따르고 있다’는 입장에서 자유로운 거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령의 결과로 자유노동자였던 마그렙 이주민들의 일부는 도시를 떠났다.<sup>102)</sup> 한편, 도시에 남은 모로코 이주민은 빈곤에 시달렸다. 그들은 식민지 출신 이주민으로서 회사의 막사나 병영에 머물러야 했고 숙박비와 식비를 회사에 환불해야 했다. 슈

102) "Algériens, Marocains et Tunisiens de 1914 à 1920", *op. cit.*, p.91.

나이더에 고용되어 있던 모로코 이주민은 1918년 1월 식량 배급에 대해 불만을 품고 파업을 일으키기도 하였다.<sup>103)</sup>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디들로의 포고령은 모로코 이주민들의 불만을 더욱 깊게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용소에 가지 않은 식민지 출신 노동자 중 일부는 르아브르 주민들의 보호 아래 숨어 있었다. 이들에게 집을 임대해주거나 하숙을 놓는 프랑스인들 중 다수는 자신의 수입이 줄어들 것을 염려해 숨어 있는 식민지 출신 노동자들을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경찰의 색출 작업은 계속 되었으며 르아브르 주민들 중 일부는 7월 7일에 공포된 포고령으로 고객을 잃은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으로, 1918년 3월 1일 대법원 le cour de cassation은 1917년 7월 7일의 포고령을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표명했다.<sup>104)</sup> 이에 따라 포고령은 파기되었고 경찰에 의해 1918년 3월까지 계속 되었던 식민지 출신 노동자들에 대한 색출 작업도 끝이 났고 베르틀로 사건과 디들로 소장의 포고령은 결국 프랑스인들의 탄원으로 효력이 소멸되었다.

디들로의 포고령에서 알제리 이주민은 식민지 출신 노동자의 범주로 분류되었으나 결국은 특별한 처우를 받는다. 그러나 알제리인은 예외적인 처우를 받았으나 프랑스인과 동등하게 간주되지는 않았다. 예외적인 처우 뒤에는 구분에 대한 표식과 일련의 요구가 뒤따랐다. 알제리 이주민을 포함하여 거주가 허락된 식민지 출신 이주민들은 자신의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했고 거주를 허락받은 식민지 출신 이주민이라는 표시로 완장을 차고 다녀야만 했다. 또한 프랑스 인과 똑같이 위생법과 프랑스인의 예절, 관습을 따를 것을 요구 받았다.<sup>105)</sup> 그러나 결국, 디들로의 법령에서 식민지 출신 이주민과는 다른 범주로 분류되었다. 특히, 외국인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디들로의 입장은 알제리 이주민에 대하여 프랑스의 구성원으로 ‘우리’로서 인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103) "Labor and politics in France: Le Havre, 1913-1923", *op. cit.*, p.170.

104) "Algériens, Marocains et Tunisiens de 1914 à 1920", *op. cit.*, p.90.

105) *Ibid.*, p.89.

한편, 르아브르의 시장 레옹 메이예의 연설을 비롯한 종전 이후의 르아브르의 상황에서 알제리 이주민을 ‘우리’로 그리고 모로코 이주민을 ‘그들’로 담론화 하는 움직임은 볼 수 있다.

1919년 레옹 메이예는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모로코인에 대한 비난과 함께 알제리인과의 연대의식을 주장했다. 전임이었던 모르강은 마그레브 사람들에 관한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반면 레옹 메이예는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레옹 메이예는 임기가 시작된 1919년 모로코 이주민에 대하여 “모로코 노동자 이주민들은 변함없는 범죄의 위협으로 존재할 것”이라 주장 하였으며 많은 수의 모로코 이주민들의 위협을 강조했다. 또한 르아브르에서 프랑스인들의 실직에 대해서도 모로코 이주민이 프랑스 노동자들의 자리를 모로코 이주민이 이미 차지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여 르아브르 노동자에게서 모로코 이주민에 대한 반감을 조장시켰다.<sup>106)</sup>

클로드 말롱 Claude Malon에 따르면 레옹 메이예의 모로코 이주민에 대한 비난과 귀환의 촉구는 정치적 의도와도 관련이 있다.<sup>107)</sup> 르아브르에서 베르틀로 사건을 기점으로 하는 일련의 이주민과 관련된 사건에서 모로코 이주민은 가장 큰 갈등을 빚는 집단이었다. 종전 이후의 시기는 전선으로 나갔던 르아브르 주민들의 귀환이 시작되었고 전지에서 비롯되는 노동력의 요구는 감소하였다. 따라서 르아브르에는 더 이상 전시에 거주하던 수의 노동력은 필요치 않았고 프랑스 노동자들의 불만은 거세어졌다. 레옹 메이예는 노동자 계층에서 큰 지지를 얻고 있었다.<sup>108)</sup>

반면, 알제리 이주민은 모로코 이주민과는 달리 ‘우리’ 또는 ‘가까운 그들’로 설정되었다. 1919년 르아브르의 시장 레옹 메이예는 항만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알제리 이주민과의 연대의식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106) *Le Havre colonial de 1880 à 1960, op. cit., p.532.*

107) *Ibid., p.535.*

108) 레옹 메이예는 르아브르 시장 임기동안 노동자를 위한 많은 업적을 달성했다. 일례로, 1921년 축산업자들의 담합으로 소고기 물가가 급격히 치솟자 그는 축산업자들을 법원에 고소하고 모로코로부터 소고기를 수입하여 물가를 안정시켰다. 이러한 급진적인 정책들은 프랑스 내의 노동자에게 환영을 받았다.

“알제리 출신 노동자들이 우리의 편에 서서 참호에서 싸운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들을 우리 자신인 것처럼 여겨야만 합니다.”<sup>109)</sup>

레옹 메이예는 이 연설에서 1차 대전에 참전한 알제리인들에 대해 상기시키며 알제리인과의 연대의식 주장하고 있다. 알제리인 70,000여명이 프랑스군과 함께 전선에서 프랑스를 참전했다. 그러나 1차 대전에 참전한 것은 알제리인만이 아니었다. 40,000여명의 모로코인들도 프랑스 전선에 있었다.<sup>110)</sup>

한편, 1918년 종전 이후로 전시 특수가 사라지고 병사들이 귀환함에 따라 1차 대전 시기에 등장했던 노동자 집단들이 차례대로 해고되었다. 1919년 르아브르의 회사들은 여성 노동자들을 대부분 해고하였다.<sup>111)</sup> 1차 대전 시기에 충당되었던 노동력은 종전을 맞으면서 방출되었다. 이로 인해 노동 시장에서의 경쟁은 치열해져 르아브르 노동자들의 식민지 출신 노동자에 대한 반감은 더욱 강해졌다. 이와 함께 1919년의 르아브르의 언론은 알제리인에 대한 찬사와 모로코인에 대한 비난이 연일 보도했다.<sup>112)</sup> 결국, 1920년 경 대부분의 모로코 이주민들은 귀환 되었고 모로코 노동자가 빠져나간 자리는 알제리 이주민이 고용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알제리 이주민을 ‘우리’로 설정하는 것은 식민정책에서 보여지는 이데올로기 담론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프랑스는 알제리인을 토착민의 계급으로 뚝뚝으로 외국인은 아닌, 그리고 프랑스 국민도 아닌 범주를 발명하여 분류했다. 토착민과 프랑스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조절된다. 알제리에 대한 프랑스의 일련의 식민정책에서 알제리인은 타자로서 인식되었지만 상황에 따라 ‘우

109) *Le Havre colonial de 1880 à 1960, op. cit.*, p.532에서 인용.

110) 마그렘 사람들과 중국인, 인도차이나 출신자들에 대한 징병은 국가의 중요한 사안이었다. 레옹 메이예는 르아브르의 시장이 되기 전 내무부 장관으로 재직하였다. 따라서 알제리인만을 강조한 것은 레옹 메이예의 무지로 돌리기에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111) 1918년에 슈나이더는 2945명의 여성 노동자를, 트레필러리에는 1250명의 여성 노동자를, 오거스트 노르망드는 250명의 여성 노동자들을 해고 하였다. *Labor and politics in France: Le Havre, 1913-1923, op. cit.*, 202.

112) *Ibid.*

리'로 인식되기도 '그들'로 인식되기도 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시의 국면에서 르아브르에서 모로코 이주민이 '그들'로 인식된 반면, 알제리 이주민은 '우리'의 범주 안에서 인식되는 담론화가 진행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 결론

프랑스의 식민정책은 프랑스와 알제리를 하나의 틀 안에 두고 사회 계층에서 프랑스인을 상향화하고 알제리인을 하향화시키는 것을 지향했다. 또한 프랑스의 알제리 이주민과 관련된 일련의 정책에서 알제리인은 프랑스의 국면에 따라 ‘우리’가 되기도 하고 ‘그들’이 되기도 했다.

알제리인은 프랑스 식민지배하에서 토착민으로 분류되어 프랑스 국적을 가지지 못하였고 외국인으로 분류되지도 않았다. 이에 따라, 1차 대전 시기 알제리 이주민은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보호령의 이주민들과는 차이를 가진다

1차 대전의 발발로 프랑스는 노동력을 요하였다. 르아브르 또한 군수와 해운 산업의 중심으로 그리고 연합군의 거점으로 활용되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일어났고 알제리 이주민을 포함한 식민지 출신 이주민들은 르아브르로 유입되었다.

알제리 이주민은 식민지 출신 이주민으로서 낮은 임금에 시달려야만 했고 이동과 이직에 대한 규제를 받았다. 한편, 전시의 르아브르의 인구는 1차 대전 이전에 비해 2배로 증가했고 사회의 불안과 빈곤은 1917년에 극에 달했다. 르아브르 주민과 마그렙 이주민의 높은 공간적 응집도와 노동시장의 구조는 르아브르 주민들 사이의 외국인 혐오증을 유발 시켰다.

이와 같은 사회의 분위기를 배경으로 하여 1917년 베르틀로 사건을 중심으로 1920년까지 르아브르 주민과 마그렙 이주민 간의 갈등은 심각했다. 갈등 양상에서 주로 주체는 모로코 이주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르아브르 주민과 시의회는 마그렙 이주민이라는 범주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낸다.

한편, 베르틀로 사건의 결과로 공포된 디들로의 포고령에서 알제리 이주민은 특별대우를 받았고 종전 후, 레옹 메이에 시장은 모로코 이주민을 먼 타자로 인식하고 알제리 이주민을 ‘우리’로 인식하는 이데올로기 담론을 펼쳤다.

1차 대전 시기의 알제리 이주민의 대규모 유입은 프랑스로서도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고 이방인의 비율이 낮았던 르아브르로서도 마찬가지였다. 르아브르

의 알제리 이주민에 대한 타자인식은 알제리인에 대한 타자인식의 연장선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르아브르의 알제리 이주민에 대한 인식은 베르틀로 사건과 디들로의 법령 그리고 레옹 메이예의 이데올로기 담론 등에서 타 외국인 또는 타 식민지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1차 대전 시기 르아브르 알제리 이주민의 사례를 통해서, 하나의 주체에는 여러 범주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해석하는 이에 따라 달리 선택되어지며 이데올로기 담론에 따라 제고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엿볼 수 있다.

본 연구는 1차 대전 시기 르아브르 도시사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프랑스의 알제리 이주민에 타자인식의 변화를 담아내고자 했다. 프랑스의 다른 도시에 비해 르아브르만이 가지는 특징을 부각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어 연구가 입체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전반적으로 프랑스의 전체사와 식민 사관, 알제리사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타자인식변화에 대한 요인을 명확히 풀어내지 못하였다. 특히, 알제리 이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이해, 프랑스 사상사와 관련지어질 수 있는 ‘레옹 메이예의 이데올로기 담론’, ‘디들로의 포고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종전 후 르아브르의 알제리 이주민과 관련한 연구는 1차 대전 시기 르아브르의 알제리 이주민에 대한 타자인식변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내용이었으나 담아내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의 부재로 인한 문제와 부족한 부분은 현지자료수집과 추후 연구를 통해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향후에는 1차 대전 시기 르아브르 주민과 이방인 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현상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Armand Frémont(2001), *Portrait de la France Villes et régions*,  
Flammarion.
- Amphoux Marcel(1932), "Les industries du Havre", *Annales de Géographie*, t. 41, n°229, pp. 32-48.
- Claire Étienne-Steiner(2005), *Le Have -un port, des villes neuves-*,  
Centre des monuments nationaux.
- Claude Malon(2004), "Travailleurs étrangers et coloniaux au Havre 1880-1962", *Migrants dans une ville portuaire Le Havre (XVIe-XXIe siècle) sous la direction de John Barzman et Éric Saunier*, Universités de Rouen et du Havre, pp.43-58.
- \_\_\_\_\_. (2006), *Le Havre colonial de 1880 à 1960*, coll.« Bibliothèque du pôle universitaire Normand », Université de Rouen et du Havre.
- Elizabeth James(2004), "Port du Havre et travailleurs d'Afrique Nord", *Enviroments portuaires*, Université de Rouen et du Havre avec de la concours de Conseil Général de la Seine-Maritime, pp.397-404.
- \_\_\_\_\_. (2005), "Algériens, Marocains et Tunisiens de 1914 à 1920", *Migrants dans une ville portuaire Le Havre (XVIe-XXIe siècle) sous la direction de John Barzman et Éric saunier*, Publications des Universités de Rouen et du Havre, pp.83-94.

- Éric Sauner(2004), "Les migrants étrangers et le Havrais: le legs du passé", *Migrants dans une ville portuaire Le Havre (XVIe-XXIe siècle) sous la direction de John Barzman et Éric saunier*, Universités de Rouen et du Havre, pp.31-43.
- Gary S. Cross(1980), "Politics of Immigration in France during the Era of World War I", *French Historical Studies*, Vol. 11, No. 4, publications of Duke university, pp.610-632.
- Isabelle Merie(2004), "De la « légalisation » de la violence en contexte colonial. Le régime de l'indigénat en question", *Politix*, Vol. 17, N°66, Deuxième trimestre 2004, pp.137-162.
- J. Soulas(1940), "Les étapes de l'évolution du Havre de 1789 à nos jours", *Annales de Géographie*, Année 1940, Volume 49, N°280, p.205-213.
- John Barzman(1987), *Labor and politics in France: Le Havre, 1913-1923*, University of California,
- L. Le sueur· Eug. Dreyfus(1890), *Droits publics et privé. La nationalité (droit interne), commentaire de la loi du 26 juin 1889*, Libraries de la cour d'appel et de l'ordre.
- Laurent Dornel(1995), "Les usages du radicalisme. Le cas de la main-d'œuvre coloniale en France pendant la Première Guerre mondiale", *Genèsis*, 20, pp.48-72.
- Malika Rebal Maamri(2009), "The syndrome of the french language in Algeria", *International journal of Arts and Science*, University of Algiers, pp.77-89.
- Michael Samers(1997), "The production of diaspora: Algerian emigration from colonialism to neo-colonialism (1840-1970)", *Antipode* 29:1, Blackwell publishers, pp.32-64.

Olivier Bouteiller(2007), *Le Havre*, Ouest-France.

Patrick weil(2003), *Le statut des musulmans en Algérie coloniale, Une nationalité française dénaturée*,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Badia Fiesolana.

Roher Suzanne(1937), "Le Havre port colonial", *Annales de Géographie*, t.46, N°2, p.181-183.

Samuel P. Huntington(1996), *The clash of civilizing and the remaining of world order*, Georges Borchardt.

김세균 외(2006), 『유럽의 제노포비아』, 문화과학사.

노서경(2005), 「알제리 전쟁에 대한 프랑스인의 ‘과거’ 성찰 -폭력의 문제를 중심으로-」, 『프랑스사 연구』 제12호(2005. 2), 한국프랑스사학회, pp.61-91.

드니쿠슈 저/이은령 역(2009), 『사회과학에서의 문화 개념 -사회학과 인류학을 중심으로-』, 한울아카데미.

새뮤얼 헌팅턴 저/이희재 역(2005), 『문명의 충돌』, 김영사.

송도영(2002), 「상징공간의 정치:프랑스의 북아프리카 식민 도시정책」, 『한국 문화인류학』 35-2, 한국문화인류학회, pp.127-155.

\_\_\_\_\_. (2004), 「이슬람권 식민지 경영과 오리엔탈리즘의 지식권력 -프랑스의 식민 도시 정책에서 사용된 공간의 여성 이미지화-」, 『담론』 201, 7(1), 한국사회역사학회, pp.172-194.

엠마누엘 레비나스 저/강연안 역(2009),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이재원(1995), 「제국주의의 식민통치비교: 프랑스-알제리」, 『역사비평』 통권 30호 (1995.2), 역사문제연구소, pp.157-168.

이정욱(2010), 『프랑스 사회갈등과 통합 - 무슬림 이민자 차별과 배제를 중심으로 -』, 부경대학교.

에드워드 사이드 저/박홍규 역(2007),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존 아일리프 저/이한규·강인황 역(2002), 『아프리카의 역사』, 이산.

프레드 포쉐(2009), 「발표문: 레비나스 철학에서 보이는 이방인에 대한 관심 (원제: Le souci de l'Etranger dans la philosophie de Lévinas)」, 『학술 심포지움 및 콜로키움』 (2010. 10. 14),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pp.1-14.

플로랑스 르누치·황명진(2008), 「프랑스 거주 외국인에 관한 인구사회통계: 우리나라 외국인통계제도정립을 위한 예비적 고찰」, 『한국인구학』 제 31권 제 2호, 한국인구학회, pp.157-182.

<인터넷 자료>

INSEE(프랑스국립통계청, [insee.fr](http://insee.fr)).

BnF(프랑스국립도서관, [gallica.bnf.fr](http://gallica.bnf.fr)).

위키피디아 프랑스([fr.wikipedia.org](http://fr.wikipedia.org)).



